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03 다섯 살 율이의 조기교육 이야기
06 모꼬지의 변
09 노들 모꼬지를 다녀와서
10 노들과 함께 한 '불확실한 학교'
15 세 개의 피플퍼스트 대회
28 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을 마치고

30 배추맘 배추파파 프로젝트, 보고합니다
34 [노들아 안녕] 노들야학의 새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36 [노들아 안녕] 센터 판의 신입 코디 심보름입니다
38 [교단일기] 천천히 즐겁게 함께
43 [현수막공장의 하루] 노란들판의 2016년 하반기는요
48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2016년 노들장애인권교육센터 이야기

54 광화문농성 1,500일, 일상으로의 초대
57 유코디,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 가다!?
60 훨훨 날아라, 꽃님 기금!
63 [형님 한 말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64 [장판 핫이슈] 권리가 박탈된 시대, 선택은 사투(死鬪)뿐이었다

66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이제 시작입니다!
69 [대학로야 같이 놀자] 변화를 보다
73 권익옹호활동가를 아시나요?
78 수연 언니의 자립 체험기
82 [뽕글뽕글 홍보상담소] 관계성으로 비추어 본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
88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조금은 다른 불안을 위하여

93 [고병권의 바마이너] 트럼프와 대의제, 지식인에 대한 단상
99 1017 빈곤철폐의 날, 이렇게 싸웠습니다!
103 수백억의 더러운 유착은 병들고 죽어간 삼성 노동자들의 피눈물
107 선감도 인권역사 기행을 다녀와서
112 [노들은 사랑을 신고] 선동의 외출
11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9호 2016·12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간「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도현 **편집위원** 강미진 김명학 김유미 김진수 박세영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16년 겨울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장에는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라고 외치며 함께 했던 많은 장애인들도 있었지요. 물론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적인 탄핵 인용이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념들이 들떠군요. 그러던 와중 저는 한 폐친 분의 담벼락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한지 4년 차인 창원의 한 청년노동자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지만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면 그게 가능한지 묻는다. 그의 질문은 이어진다.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느껴야 합니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읽게 된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5)에서 김현경 님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지배적인 모욕의 형식이 된 '굴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굴욕과 모욕의 차이는 무엇인가? 모욕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있지만, 굴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 신자유주의 하에서 모욕은 흔히 굴욕의 모습

을 띠고 나타난다. 예고 없이 실직을 당할 때, 일한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을 때, 아무리 절약해도 반지하 셋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굴욕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모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모욕은 구조가 아니라 상호작용 질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의 모순은 상호작용 질서의 차원에서 (즉 상징적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구조의 차원에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단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위의 글 속에는 이번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준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퇴진으로 멈추어서는 안 될 어떤 근거와 이유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소수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단을 빼앗는” 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싸움은, 그래서 박근혜가 퇴진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2017년에도 노들은 그러한 싸움을 일상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치열하고 즐겁고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노들이 그런 '공동-체'(共動-體)로서 더 많은 이들과 접속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섯 살 율이의 조기교육 이야기

허신행

2010년 학교 졸업 후 상근자로서 줄곧 노들야학에 있다가 올해 2월 독립(?)을 하였다. 현재는 주식회사 생각의 마을에서 사회복지 관련 출판, 연구 컨설팅 (개인 및 단체의 연구 작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2016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섯 살 난 아들 율이와 함께 시청 광장을 찾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퀴어축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퀴어축제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했던 것을 상당히 즐거워한 아이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고(예전 사진을 보고 기억한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번에도 같이 가겠느냐는 나의 제안에 흔쾌히 찬성했다.

세발자전거에 짐까지 잔뜩 이고 간 그 날, 하필이면 소나기가 쏟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닌 타 단체 부스에 황급히 몸을 피하고 있다가, 비가 어느 정도 그치자 밖으로 나왔다. 아직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K신문의 모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청했다. 기자는 우리 둘의 사진도 찍고 축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때만 해도 3분간 진행된 짧은 인터뷰가 몰고 올 파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축제에 참여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부터 지인들에게 카톡이 왔다. 너와 네 아들이 기사에 나왔다고. 처음에는 신문 기사에 아들과 함께 실리게 된 것이 은근히 기쁘기도 했고, 추억 거리로 나중에 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댓글들이 달리면서 산뜻했던 기분은 이내 사라졌다. K신문 사이트에서는 댓글이 별로 없었는데, 네이버에는 120여 개, 다음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댓글은 대부분 악플이었다. “정신 간간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 “나중에 지 아들이 머느리로 머슴아 데리고 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가?”, “미친것들... 애 데리고 글케 갈 데가 없나?!”와 같이 부모인 나를 비롯한 축제 참여자들과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실 이것보다 수위가 높은 것도 많았으나 지면에 옮기기엔 부적합한 것들이라 걸러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한 소리를 들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아이의 ‘조기 교육’ 차원에서 함께 나왔다는 발언을 해서 혐오 세력에게 더 욕하는 마음을 들도록 한 것 같다. 아이와 내 사진이 노출되어서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괜히 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뭐라 대꾸를 해주고 싶었다. 물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의 악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했다. 오늘 일이 실수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조금 재미있기도 했다. 뻔한 스토리와 무논리로 혐오의 감정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거니와, 내가 듣고서 상처를 받은 만한 지점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꿰뚫는 그런 글은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악플의 대상이 된 점은 난감한 면이 없지 않으나 잘못된 바가 없으니 문제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마음 한 편에서는 수구 기독교 세력의 귀어축제 반대집회에서 혐오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던 나의 안타까운 시선을 우리 아들도 받았을 거라 생각하니 묘한 기분은 든다.

여러 사람의 우려와 안타까움에도 나의 ‘조기 교육’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교육

나는 아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운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만남’을 갖는 것 같다.

관과 연관이 깊다. 나는 아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운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만남’을 갖는 것 같다. 성소수자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투쟁하는 노동자도 만나는 것이다. 그들이 탄 세상에 사는 이방인이 아닌 내 친구가 되고 내 동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연대하고 같이 잘 사는 방안을 공리하기 마련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아이가 노동야학에 여러 차례 놀러 오고 학생이나 교사들과 만나다 보니, 장애를 특별함이나 거리감 없이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끔은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싶다는 말로 아빠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는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곧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바뀐다.

한 2주 정도 jtbc뉴스를 보더니 “박근혜 대통령 당장 나가라”는 구호를 자기도 외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 지난 11월 12일 총궐기에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출발 직전부터 열이 38도 넘게 오르는 바람에 함께 가지 못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단단히 준비하고 ‘민주주의 조기 교육’을 하러 현장 학습에 나서야겠다.





모꼬지의 변

조은별

술을 매우 좋아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노들은 점점 술을 마시지 않는 추세. 모꼬지 때 내 마음만큼 술을 께짜으로 샅다가, 엄청 남았다. 노들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자주 마시는 문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또 다음 술 마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술이 필요할 때, 다들 만납시다.

7월의 한여름 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모꼬지 를 떠난 것이 이렇게 불길한 일의 시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2박 3일 모꼬지 일정,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바 다가는 해. 밥을 좋아해 밥팀을 맡아 몇 달간 재 밋게 모꼬지 준비를 했다. 룰루룰루~ 지난번 바 다 모꼬지 평가를 떠올리며, 더 맛있는 밥과, 더 즐거운 놀이와, 더 편안한 숙소를 위한 물품들을 사면서, 바다가 얼마나 재밌을까 마음속으로 마 구 상상했다.

함께 떠나는 80여명의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었겠지. 보고 싶은 친구들과 곧 만날 약속을 하 며 나는 선발대로 떠났다. 먼저 해수욕장 앞 방 갈로에 자리를 잡고 모래 범벅이 된 방바닥을 수 도 없이 닦으며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밤 에 술이라도 한 잔 하려면 히야시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얼음도 아이스박스에 넣어 두었다. 옥수 수 한 포대와 감자 한 박스를 사서 찌먹을 시간 만 기다렸다.

대학로에서 본진의 출발 시간은 오후 6시. 10 시쯤 도착하겠지 싶어 어슬렁거리며 마중을 나 가는데,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졌다. 아니, 후 두두둑이 아니라, 와르르르라고 해야하나. ‘오 마이 갓!’ 아까 낮에 선발대에서 우스갯소리로 ‘비오면 본진은 출발하지 않고 우리만 여기서 2 박 3일을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비는 본진이 도 착하자마자 쏟아져 내렸다. 리프트도 내리고 짐 도 내리고 비를 피하며 모두 혼비백산이 되었다.

해수욕장 측에서 제공한 이불은 100개. 그러 니까 이불로 요까지 곁해 1인당 1개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실 잡자리에 놓기 전까지

는 별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아뵘싸, 비가 오는 바람에 넘나 추워진 것. 이불 하나로는 얼어 죽 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2장씩 나눠주고 나 니, 몇몇 교사에게는 돌아갈 물량조차 없었다. 명희랑 나는 간신히 어디서 이불 하나를 구해서 둘이 배만 덮고 있었는데, 춥기도 하고 빗물로 지붕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 었다. 가방에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꺼내 세 겹 네 겹으로 입었지만 한겨울 농성보다도 더 추운 상 황이었다. 게다가 여름 바캉스라고 다들 반팔과 반바지만 준비해 와서, 아무리 껴입어도 팔다리 에서 닭살이 돌아나 닭이 되어버릴 지경이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버스를 불러 돌아가야 하나,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대처하나 생각하다보니 새벽이 밝았다. 사실 안 밝았다. 비가 너무 와서 해도 뜨지 않았다. 그때 태풍이 왔었나? 아침에 확인해보니 파도가 너무 높아 해변은 아예 접근 금지였다. 바다를 보러 2년 만에 왔는데, 바닷물 에 몸을 담그는 것은 고사하고 해변에서 파도조 차 바라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간신히 근처 식당에 주문해둔 밥을 찾아서 아 침을 먹고 난 후 방갈로 안에서 건강권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도 햇빛 좋을 때 모래사장에 돌 러앉아 들었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비는 천막을 뚫고 들어올 듯 무자비하게 내렸고 우리는 다들 많이 슬펐다.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사방이 오 지인 이곳에서 갈 곳이란 없다. 비를 피할 수 있 는 유일한 곳은 방갈로. 아무도 휠체어에 타지 않았다. 아침 먹고 강의 듣고 나니 할 일이 없 어서 곧바로 점심 준비에 돌입했다. 닭 50마리로

100명이 먹을 닭백숙을 한꺼번에 만드느라 스 무 명의 사람들이 닭의 엉덩이를 손질하는 진풍 경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도 어찌 어찌 물놀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뜨끈한 닭백숙 국 물이 우리의 몸을 덥혀줬다.

나는 이즈음 정말로 슬퍼서 방갈로에 누워서 눈물이나 흘리고 싶었다. 명희는 너무 추워서 껴 입은 우비를 절대 벗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청테 이프로 우비 이음새를 꼼꼼히 붙였다. 잘 때도 그대로 입고 자겠다고 했다. 소민과 함께 온 찬 미 언니는 80년대에 KBS 앞에서 이산가족 찾기 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욱 이 어져있는 방갈로 천막, 유성매직으로 종이에 쓴



일정표(일정이 다 사라지긴 했지만),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비, 낙심한 사람들의 표정은 약간 수용소 같은 느낌마저 풍기는 게 사실이었다.

수용소면 어찌겠는가.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할 일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감자와 옥수수를 썰먹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미안하긴 한데, 간식 시간 다음엔 간단한 놀이(원래는 모래사장에서 하려고 했던 바다 프로그램이었지만)를 하고 바로 또 저녁을 먹었다. 삼겹살구이와 모듬회. 8명씩 하나의 불판에 둘러 앉아 고기며, 버섯, 부추 등을 구워먹고, 동해 바다의 싱싱한 회도 먹었다. 맛은 진짜 좋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한 일라고는 먹고 또 먹고, 먹은 것 밖에 없었다. 어디 놀러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 시골 해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먹기만 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밥을 먹으니 초저녁부터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새벽 4시까지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불 60벌을 추가로 더 요청해 받았지만, 이 강추위에 1,000벌은 있어야 모두가 넉넉하게 덮을 것만 같았다. 이불은 발이 달려 사라졌고, 선착순처럼 먼저 누워야만 이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잠자리가 불편해 오기 싫다는 학생들도 많아서 에어매트도 사고 여러 가지 방편을 열심히 고민했는데, 결국 가장 필요했던 건 상상도 못한 '이불'이었다. 학생들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해수욕장 관리팀 측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었다. 총학생회장 애경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바다 못 들어갔으니, 내년에 또 옵시다~!!"

우리는 내년에 또 올 수 있을까? 바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하튼 엄청난 모꼬지였다. 부디 내년에는 어디로 가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노들 모꼬지를 다녀와서

김진석

노들야학 불수레반 학생입니다.



2016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양양 광진리해수욕장으로 노들야학에서 주최하는 2박 3일간의 모꼬지 캠프를 다녀왔다. 장애인 시설에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먹고 자고 일만하면서 꿈도 목표도 없이 무기력하게 생활을 해오다가, 시설 밖으로 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해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노들야학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들야학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적응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긴 했다. 하지만 야학에 다니면서 차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밥도 먹으면서 적응이 되어서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노들야학에서 주최하는 모꼬지 캠프를 가겠냐고 연락을 받았다. 시설에서 나와 처음으로 모꼬지 캠프를 가는 거라 당연히 가겠다고 했

다. 모꼬지 캠프는 노들야학 학생이랑 선생님들이랑 가는 거라서 그런지 마음이 설레고 호기심이 생겨 기대를 하였다.

2박 3일 동안의 모꼬지 캠프는 아쉽게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천막 안에서만 있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될 수 있었다. 다 함께 게임도 하고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비가 그쳤다. 다 함께 바다를 구경하러 백사장에 가서 파도치는 것도 보고 발도 담구고 사진도 찍고 모두들 즐겁게 바다를 구경하였다. 비록 비가 와서 바다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시설에서 나와 처음으로 모꼬지 캠프라는 것을 가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 시설에서 캠프를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모꼬지 캠프였다.

노들과 함께 한 '불확실한 학교'

≡≡≡ 최태운

작가이자 교육자.

2013년 뉴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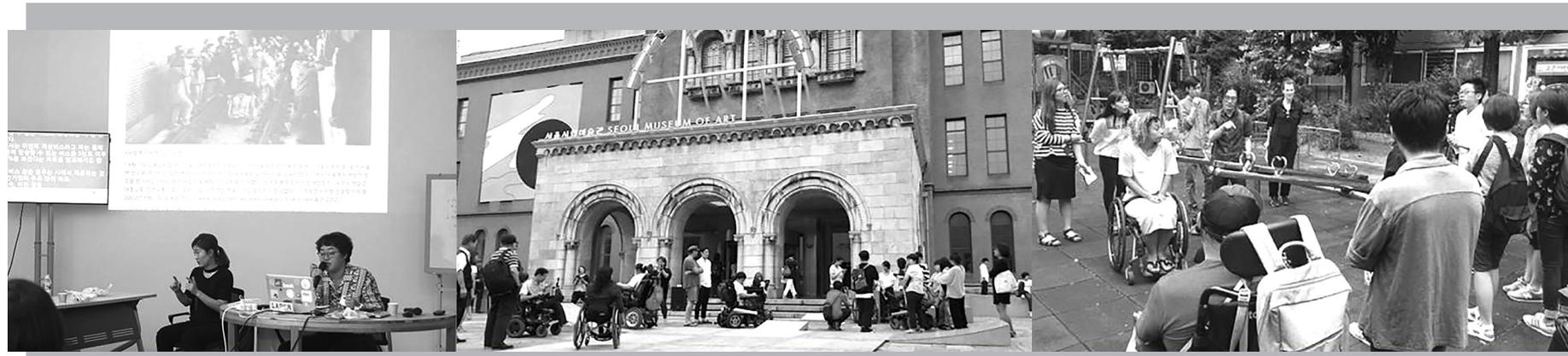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시적연산학교)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에는 장애와 정상의 벽을 '탈학습'하고

예술과 기술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램프와 접근성 매핑' 세미나에 노들야학을 초대한 최태운입니다. 이 세미나를 함께 진행한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은 기술과 장애의 연결점에 집중하는 디자인 연구자예요. 역동적인 모습의 장애인 아이콘을 대중화하는 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헨드렌은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올린 공과대학(Olin College of Engineering)에서 보조공학과 적응성 디자인(Adaptive design)을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스 셰퍼드(Alice Sheppard)는 자신의 장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인 안무가예요. 그는 의사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신의 예술의 시작점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자기 신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여요. 셰퍼드는 10년 전까지는 중세 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였지만, 다른 장애인 무용수의 공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안무가 겸 무용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노들야학과 함께 진행한 세미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여름 캠프인 '불확실한

학교'의 행사였어요. 노들야학 한명희 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평소에 좋게 생각하던 노들야학의 활동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가까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불확실한 학교'에는 특별한 감각과 각기 다른 의사소통 방식, 움직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작가, 사회복지사, 활동가, 장애인, 비장애인 등으로 다양하게 섞여 참가했지요. 교과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스토리텔링 중심의 테크놀로지 관련 워크숍 5회,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과 함께 현대사회에 관한 비판적 주제를 다룬 세미나 5회, 참가자들의 전시 준비를 위한 세션 3회로 구성되었어요. 사라 헨드렌과 엘리스 셰퍼드는 '램프와 접근성 매핑' 세미나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의 접

근성 문제를 다루었어요. 노들야학 선생님과 학생분들, '불확실한 학교' 참가자, 일반인 참가자 총 40명이 북서울미술관 근방 걷기 투어에도 참여했지요. 휠체어로 이동하는 이들과 두 다리로 걷는 이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투어를 통해 우리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묘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요소를 관찰하는 법을 익혔어요. 올바른 움직임에 관한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회였지요. 노들야학의 한 참가자는 "우리는 늘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은 아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 우리 몸은 공간에 확장한다."고 말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11월 10일입니다. 제가 사는 뉴욕도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아침,

미국 대선 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특히나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해온 사람이예요. 예컨대 트럼프는 『뉴욕 타임스』의 기자이자 선천성 관절만곡증이 있는 세르지 코발레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롱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가 선거를 앞두고 쓴 책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의 제목에서 ‘불구’라는 단어의 선택은 사회의 문제점을 신체의 결함에 비유해요.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의 성향을 잘 보여주지요. 클린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사회 환경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했어요. 클린턴은 장애인의 직업권을 보장하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목적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어요. 어제 투표하러 가면서 가는 길에 설치된 것을 보면서 부듯하고,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갈 것이라고 희망했어요. 이런 희망들은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며 깨졌지요. 하지만 무력함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의 노들야학과와 만남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라 헨드렌과 저는 세미나 후에 노들야학을 방문해서 한명희, 김명학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사라 헨드렌이 디자인한 이동식 경사로를 노들야학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아래에 세미나의 질의응답을 요약 편집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램프와 접근성 매핑’ 세미나 질의응답 기록(2016년 9월 3일)

노들야학 교사: 오늘 감사드려요. 저희 야학에 있는 학생 분들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십니다.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에 장애가 있다가보다는 거의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떨림이 심하시거나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까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사라 헨드렌 작가님은 디자인을 하시거나

퍼포먼스 공연을 하실 때 어떤 복합적인 장애에 대한 고민이나, 복합적인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예술을 창작하시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라 헨드렌: 질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달장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복합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에 아트링크(Artlink)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복합적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작업을 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미세한 시작점, 느낌, 표현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원봉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또 다른 그룹은 어댑티브 디자인 어소시에이션(Adaptive Design Association, ADA)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그룹이고요, ADA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필요에 맞춰서 특화된 가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시고 희망하시는 것으로부터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저도 노들야학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역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죠. 이런 시위와 같은 실천의 역할도 있지만 문화적인 상상력, 이런 담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른 것, 그리고 이런 행위와 사건들에 어떠한 방법론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들야학 교사: 노들장애인야학에서는 과거 한 시위와 활동도 하지만 저희의 주요 활동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고, 특활 수업 안에 있는 미술, 연극, 방송, 음악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저희가 마로니에 공원 뒤쪽에 TTL 무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장애인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저희가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문화행사를 매 해 진행하고 있어요. 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준비하면서, 행위의 주최자로서, 우리들만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속도의 공연이고, 그것이 야학 내에서 수업이나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들야학 학생: 노들장애인 야학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당사자로서 얘기하자면요, 장애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그 이유가 불완전한 몸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문화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엘리스 세퍼드: 이 기회에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 정책과 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것들,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들을 예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술이 어떠한 열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니다. 그 열림은 정책 변화와 사회 참여를 포함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변화까지도 포괄합니다. 저에게 예술이란 이런 부끄러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부끄러움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우리에게 덧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시선이 편협하다는 것을 깨달도록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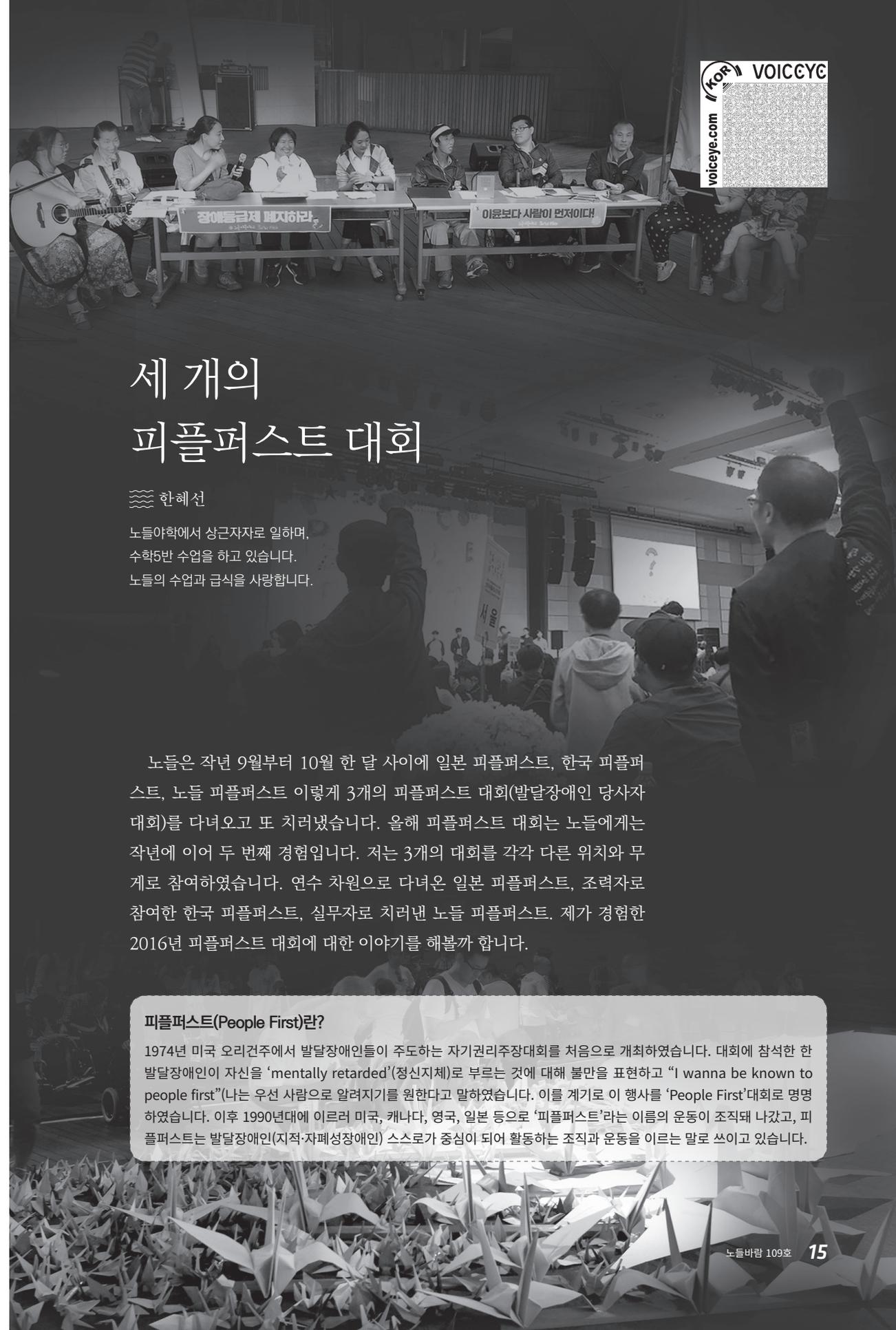
사라 헨드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 직접적으로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술, 비평적 디자인, 퍼포먼스 등의 특징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새로운 가능성들로 연결되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 상상력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꿨을 때는, 어떤 가시적인 척도로 측정될 수 없는 더 깊은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들야학 학생: 제 경우에는 연극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정상성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게 어

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들야학에 와서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학교 참가자: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뇌성마비나 언어장애인과 소통을 시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과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글로 소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소리로 대화하고 싶은데 이런 기술을 연구하거나 도구를 제작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라 헨드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몸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동작을 음성이나 소통 가능한 소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나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진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세 개의 피플퍼스트 대회

한혜선

노들야학에서 상근자자로 일하며, 수학5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의 수업과 급식을 사랑합니다.

노들은 작년 9월부터 10월 한 달 사이에 일본 피플퍼스트, 한국 피플퍼스트, 노들 피플퍼스트 이렇게 3개의 피플퍼스트 대회(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다녀오고 또 치러냈습니다. 올해 피플퍼스트 대회는 노들에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경험입니다. 저는 3개의 대회를 각각 다른 위치와 무계로 참여하였습니다. 연수 차원으로 다녀온 일본 피플퍼스트, 조력자로 참여한 한국 피플퍼스트, 실무자로 치러낸 노들 피플퍼스트. 제가 경험한 2016년 피플퍼스트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플퍼스트(People First)란?

1974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자기권리주장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한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mentally retarded'(정신지체)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행사를 'People First'대회로 명명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으로 '피플퍼스트'라는 이름의 운동이 조직돼 나갔고,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장애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조직과 운동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6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 참가 연수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야학 상근자인 진수, 유미와 함께 요코하마에 다녀왔습니다. 노들야학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팀에 속해 다녀왔는데, 참가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비행기 표와 숙소를 따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유미와 진수가 애쓴 덕분에 저가 항공과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일괄 처리한 한자협 팀 회비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한자협 팀과 합류해 7월에 발생한 가나가와현 시설 거주 장애인 집단 살인 사건 현장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첫 해외 나들이에 첫 풍경이었으므로 가나가와현으로 가는 길이 조금은 설레야 했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울창한 나무들과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매한가지로

시설은 이렇게 외로운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에 차창 밖의 경치가 서글펐습니다. 이 외로운 곳에서 조용한 새벽 잠자는 시간에 느닷없이 당한 죽음들을 생각하니 너무 서럽기도 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일어난 시설은 산속에 텅그러니 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집들도 간혹 있는 한적한 도로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 앞에는 참배할 수 있는 분향소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

갔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시설 안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한 장애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들,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

면서 두려움에 떨다 살아남은 이들. 그들에게 그 밤은 얼마나 무섭고 슬픈 밤이었을까. 단지 한 사람의 돌발적인 만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뭘 할 수 없는 존재,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시설에서 따로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한, 이런 끔찍한 일은

집에서 부모에게 목 졸려 죽거나 시설에서 맞아 죽거나 하는 형태로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추모식과 헌화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자유 일정으로 보내고, 9월 21일 대회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전은 요코하마에 머무는 중 유일하게 비가 안 온 반나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코하마에 있는 내내 비에 젖은 운동화와 씨름을 했지요. 그날도 전날 저녁에 몽쳐 넣은 신문지를 빼내고 드라이기로 겨우 조금 말린 운동화들을 신고 아침 일찍 서둘러 걸어서 대회장인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로 갔습니다. 일찍 서두른 덕분인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는 길에 야마시타 공원도 산책하고,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아침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대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대회장 입구에는 접수를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고, 대회 티셔츠를 파는 부스와 지역별 작업장에서 만들어 온 물건을 파는 부스에도 사람들이 몰려 활기를 띠었습니다. 일본에는 시설 장애인들이 1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이 대회에 참석을 못하고, 참석자의 대부분은 작업장에 있거나 그룹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원활동을 하는 스텝들도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이구요. 일본에는 전국에 장애인 작업장이 많다

고 합니다. 대회 참가비가 1인당 1만엔이 넘고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더하면 비용이 꽤 되는 편인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두 자부담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작업장에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피플퍼스트 대회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으로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플퍼스트 대회는 당사자 대회이다.” “지원자(조력자)는 발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를 때만 지원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을 하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로 실행위원들을 꾸리고 거의 1년 동안 대회 준비를 하는데, 7월 말에 벌어진 사건으로 주제가 모두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설 ‘쓰구이야마유리엔’ 집단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의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주제 발표의 첫 번째는 전문가의 발표 순서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지역으로, 시설에서 지역으로 나가자’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 세 명의 통역자 중 한 명은 중간에 포기했고, 일본인 통역자도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하는지, 듣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표에 화가 났습니다. 이 대회에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하자’

는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당사자 한 분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사건 내용인가?”라고 물었고, 발표자는 정중하게 여러 번 사과를 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주제가 바뀌고 급하게 발표자도 바뀌면서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순서로 대회의 실행위원들이 참가 현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보고, 4명의 토론자들과 사회자가 돌아가며 발표도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에 담은 발언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우리 동료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시설에 지금도 있는 동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도 잊지 말자.” 그리고 발언자 모두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장애인들’이라고만 표기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한마디씩 했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왜 발표하지 않는가.” “내 친구가 쓰구이아마우리에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꼭 이름을 밝혀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쓰구이아마우리엔 사건을 규탄한다”는 내용과 그 사건 이후의 두려움과 슬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애

기했습니다. “장애인은 필요 없다는 가해자의 말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장애인은 없어져버리라는 생각에 맞서 싸워나가자.” “우리들의 생활을 국가와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그리고 “왜 시설에 모여 살아야만 하나?” “시설을 없애자.” “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이어서 토론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학대의 구체적 경험들, 시설에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을 얘기하자 여기저기서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론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손을 드는 사람도 적고 추모 분위기로 차분하다고 옆에서 유미가 말해줬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말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 자기의 바람이나 차별의 경험,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당사자들도 손을 많이 들었고 발언 기회를 얻어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현화를 하고,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는 추모의 종이학을 무대 위에 가득 올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일정인 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정된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하고 컸지만, 참석자가 워낙 많아 앉지도 못하고 비좁게 서있어야 했습니다. 뷔페 음식이 차려졌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좀 기다렸다가 가려했더니, 음식이 더는 안 채워지고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가비 중 1인당 6만 원 정도가 교류회 뷔페 값이었는데 접시 한 번을 못 채우고 음식이 떨어지다니,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 뻔 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담아온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먹으며 후원 받은 기린 맥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회니까 ‘교류’를 해야 했습니다. 당사자 분들이 여기저기를 돌며 자기소개를 담은 명함을 주고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교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명함을 쥐서 고맙다고 하며 받았는데, 저에게는 명함이 없다고 하자 주었던 명함을 다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 공감에서 당사자로 참석한 분들이 명함을 주고받고 일본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다른 한편 ‘우리 학생들도 저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며 다닐 수 있을까’라는 염려까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류회가 끝나고 노들야학의 3인은 뷔페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음식점에서 저녁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피플퍼스트에 대한 느낌들도 나누었는데, 이런 회의를 뭔가 판에 박힌 어느 행사들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누고, 유미는 대회장에서 뭔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만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거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비마이너』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에 계속 참여했던 대구 활동가가 몇 년 동안 ‘시설학대’ 주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해결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TV에서는 계속 태풍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9월 22일 대회 둘째 날 아침에는 아니나 다를까 빗줄기도 더 굵어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습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인 분과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회장인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걸어가는데,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비바람에 우산은 홀러링 뒤집어지고, 목에 건 이름표는 휙휙 돌아 등쪽에 달려있고, 겨우 조금 말려 신고 나온 운동화는 물에 폭 젖고, 옷도 비에 흠뻑 젖은 우리 모습이 서로 웃겨서 연신 깔깔거리며

대회장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허, 그런데 우리 분과회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전날 교류회를 했던 호텔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 호텔은 우리 숙소 바로 코앞이었는데 말입니다.

분과회는 ① 그룹홈 ② 전쟁 반대 ③ 당사자의 기분, 이야기를 듣는다: 자립을 즐기는 법 ④ 오오후지엔의 학대사건 ⑤ '~다!' 코너 ⑥ 장애인권리조약 ⑦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 하자 ⑧ 알림으로 사회를 바꾼다! 팬지 미디어 ⑨ 힘이 나는 이야기 ⑩ 생활보호와 연금 ⑪ 여가활동, 이렇게 11분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우리 한국 팀은 3분과에 속해 참여했습니다. 3분과 주제는 '당사자의 기분, 이

야기를 듣는다: 자립을 즐기는 법'이어서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자신이 자립하게 된 사연, 자립하기 전과 비교해서 자립한 후의 즐겁고 행복함, 하고 싶은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자들이 준비한 OX퀴즈도 했는데, 발표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좋아하는 연예인, 싫어하는 것,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당사자들도 "완전 신난다, 최고다"라며 신나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어 분과회를 마치고 다시 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에 모여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폐회식 첫 순서로 참여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어제 지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힘차게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어 마이크를 받고는 말은 못하고 쭈뼛거리다 조그만 소리로 좋았다고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당사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일본 만화 좋아하고, 일본 라면 맛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계속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를 끊고, 사회자가 대회 슬로건 발표에 이어 피플퍼스트 선언을 했고, 이번에는 덧붙여 피플퍼스트 가나가와(이번 장애인시설 집단 살인 사건이 난 지역)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회 개최지로 발표된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틀간의 일본 전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자협 팀은 저녁에 다시 모여 뒤풀이를 하고 참여 소감을

나누며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대회에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력자로 참가한 것도 아니다 보니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는 좀 여유롭게 다녀온 편입니다. 외국을 나가 본 경험이 없던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저는, 일본어를 많이 못하는 유미와 일본어를 조금 밖에 못하는 진수의 도움으로 말을 안 하고도 5일 동안 일본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내내 우리 낮 수업 학생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온 다른 팀들을 보며 부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그랬다면 이렇게 편하게(?) 다니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동시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 히로시마 대회는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2016년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참가

10월 21~22일에는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렸고, 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당사자로는 주원, 지민, 경남, 소민, 그리고 조력자로는 진수, 임당, 여의와

함께 제가 참석을 했고, 노들센터에서 당사자 수지와 조력자 미진 샘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상근자 세 명만 다녀온 일본 피플퍼스트와

달리 당사자들과 함께한 1박 2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기차를 타야해서 출발부터가 큰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출발 계획을 세우고, 당일 아침 전화로 깨우고, 서울역까지 혼자 못 오니까 야학에서 만나서 오고, 집 근처 가서 같이 오고, 유일하게 혼자 올 수 있는 주원이형은 혼자 오면서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지만 약속한 시간에 모두 모인 서울역에서의 만남은 감격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진이다 빠졌지만 이진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원에 도착해서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 택시를 소민이 안타겠다고 버텨서 먼저 택시에 탄 사람들은 택시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소민을 설득하다 안돼서 버스정류장을 찾아 버스를 타고 대회장으로 갔습니다.



컨벤션센터 안의 대회장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개회식을 끝내고 OX퀴즈를 진행했는데 가장 신나고 들쭉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원이형과 지민이형은 계속해서

“저요! 저요!” “여기 서울~”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애타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목을 받아 답을 맞힐 기회가 없어 다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답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답은 모른다고 해서, 사회자의 지목을 받았더라도 맞히지는 못했을 텐데, 아무튼 무지 아쉬워하고 우리를 지목하지 않은 사회자를 탓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제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각 지역에서 발표자들이 PPT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자신이 겪은 ‘차별과 학대’를 발표할 때는 힘내라고 외치며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이 외에도 ‘장애희망’과 ‘취미’ 등 다양했지요. 시작과 끝, 휴식 시간까지 시간표대로 정시에 진행되는 행사는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류회 시간이 되어 차려진 뷔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재빨리 학생들과 줄을 서서, 되도록 음식을 가득 담으라고 당부하고, 공들여 알차고 신속하게 음식을 담아왔습니다. 소민이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더니 정말 접시를 들고 음식을 마셔버리는 ‘접시 원샷’ 신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두 접시까지지는 꼭 먹어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음식을 빠른 속도



로 흡입했는데, 다행히도 일본과는 달리 떨어진 음식은 계속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리다가 채하겠다면 서로를 토닥이며 조금은 차분하고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지자 낮 수업 시간에 만들어진 각자의 명함을 들고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신나서 명함을 열심히 주고받으며 인사를 다니기도 하고, 처음에 조금 다니다가 돌아와 자리만 지키기도 하고, 조력자 뒤에 바짝 붙어 다니기도 했지요.

장기자랑 시간에 서울팀이 무대에 오를 때 소민이가 무대에 안 올라간다고 버티다가 힘겹게 올라가더니, 올라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노래에 맞춰 춤을 춰서 빵 터졌고, 주원이형, 지민이형, 경남, 수지까지 연습한대로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춰줍니다. 축하공연에 이어 경쾌한 음악으로 클럽 분위기가 조성되자 모두들 하나같이 무대 위와 주변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대회 첫째 날을 마쳤습니다.

대회장에서 숙소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힘들어하는 소민이를 응원하며 걸어서 숙소를 찾아갔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폐회식 때 소감 나누기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주원이형과 지민이

형, 수지가 무대에 올라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소민과 마이크를 싫어하는 경남은 나가 지 않았고요. 폐회식 끝 순서로 다음 개최지가 서울로 발표되자 서울팀은 모두 무대에 올라 준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모두들 내년에는 서울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며 모든 대회 순서를 마쳤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역에서 소민이가 지쳐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기차 타기 직전에 타지 않겠다고 버티기차를 놓칠까봐 가슴을 졸였는데, 여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사히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조력자로 참석한 피플퍼스트는 힘도 들고 일도 많았습니다. 임당, 여의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대회는 흥겨운 자리였고, 학생들도 모두 재밌어했습니다. 진행 방식이나 틀은 일본 피플퍼스트를

거의 그대로 따온 듯 했습니다. 내년엔 서울에서 진행하면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겠지 하니 이렇게 화려하게 치르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피플퍼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준비를 위해서 서울지역 준비모임을 몇 번 가졌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우리 야학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내거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대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할 텐데 벌써부터 주원이 형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동센터 대범 씨에게 밀릴 것 같다고 염려도 하면서요.

2016년 노들 피플퍼스트 대회 참가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에 앞서 10월 7일에는 '2016 노란등판의 꿈' 사전 행사로 노들 피플퍼스트 대회를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엔 이어 듣도 보도 못한 피플퍼스트 대회였습니다. 우선 장소부터가 화려한 대회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치른 대회였습니다. 일본 대회나 한국 대회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고, 우

리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꾸렸습니다. 임당과 낮 수업 강사들이 학생들과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직접 무대에서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막상 무대에 서니 연습 때 처럼 말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낮 수업 시간에 자기 얘기



하는 것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 보았습니다. 일명 노들 봉숭아 학당. 마이크를 싫어하는 경남을 위해서는 경남이 요청한 소형 메가폰을 준비했고, 교실의 책상을 그대로 옮겨와 용기종기 앉아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메가폰이라 당당하게, 누구는 또 조금은 수줍게, 때로는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함으로, 줄곧 탄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당사자 선언이 있을까.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선언하진 못하지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자기 선언의 시작일 수 있진 않을까. 임당은 이렇게 무대

중심의 행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피플퍼스트의 가장 빛나는 순서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거리행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깃발과 우리의 주장을 담은 깃가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인강원에서 탈시설을 준비하는 분들이 초청 되었는데 ‘푼돈들’ 초청공연 시간에도 일어서서 흥겹게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더니, 거리행진에서도 목이 터져라 자기의 목소리를 외치며 함께 하셨습니다.

대열 맨 앞까지 갔다가 뒤가 궁금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반복하는 주원이형,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는 주먹을 들어 구호를 외치는 지민이형, 집회를 좋아하는 경남이, 힘들어서 뒤로 쳐지다가도 구호

를 외칠 때는 아무지게 외치는 소민이, 오랜만에 나와서 밝해진 얼굴로 함께한 혜운 언니, 단짝 친구 정이와 함께 나란히 전통월차를 타고 행진하는 준수. 모두 무대에서 수줍어하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는 모습들이 멋진 행진을 만들어 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연이 아파서 참석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세 번의 피플퍼스트 대회를 참여하고 나니

올해 이렇게 세 개의 피플퍼스트 대회를 참여했는데, 아직 피플퍼스트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플퍼스트가 과연 중요한 행사인지, 피플퍼스트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보며 여타의 행사들을 따라하는 듯 느껴져 아쉬워했던 것은 어쩌면 내 식대로 재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큰 행사들이 신체적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왔는데, 발달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디서나 지시와 가르침을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기의 목소리로 맘껏 외치는 것만으로도 벽차고 소중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행위원이나 추진위원으로 주제를 잡고 발표를 준비

하며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자기소개 명함을 만들면서 행사를 기다리는 시간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고 진행과 발표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저요~저요~”하면서 말을 하고자 하고, 비싼 음식도 먹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 자기를 소개 하고, 그런 가운데도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있거나 못 알아들을 소리를 지르고 만 짓만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만의 시간으로 채워진 행사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사장을 벗어나면 차표를 끊고, 숙소를 잡고, 이동하는 일부터 여러 일을 본인이 주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에게 차츰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 노들 학생들은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은 진행이나 발표를 맡지 못하고 소외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들도 자기의 목소리로 말하고,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노들 피플퍼스트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피플퍼스트에 관련된 이 글을 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복잡하게 엉켜서 생각이 정리가 안되어 그런 거라 여겼는데, 글을 쓰면서 보니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이고, 복잡하게 엉켜서가 아니라 너무 몰라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성은 무엇인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옆에서 주원이형이, 지민이형이, 혜운언니가, 경남이가, 소민이가 답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발달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자기의 목소리로
맘껏 외치는 것만으로도
벽차고 소중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을 마치고

송정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보 코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노들바람』 가을호에 처음으로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노들센터에서 활동한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활동하는 동안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쌓였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도 싶었는데, 마침 소식지의 한 페이지를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본마당 사회를 보기도 했던 '2016 노란들판의 꿈: 아름다운 역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탓인지 몰라도 글 쓰는 습씨는 형편없겠지만, 그래도 몇 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노들야학의 승천이 형은 굉장히 바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저에게 노란들판의 꿈 본마당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선 한 번은 튕겼습니다. 바로 승낙을 하게 되면, 제가 밤무대를 망쳤을 경우 모든 화살이 저에게 쏠릴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지요(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전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에게 적어도 한 번은 더 제안을 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이 형은 아마도 바빠서 그랬겠지만 그 이후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결국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승천이형 미안).

그동안 노들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 사회를 보기도 했지만, 노란들판의 꿈 행사 사회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도 많이 됐고, 또 반대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실수를 해서 밥상을 엮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지요. 어쨌든 별 탈 없이 행사는 무난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접다가 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봉합을 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열심히 정리하다 다친 거라 처음에는 조금 억울한 맘도 있었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걱정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손가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2주 정도 지속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손가락이 다치고 아픈 것 보다 일종의 관심병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이 저에게는 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노란들판의 꿈 행사만 하면 비가 왔다는 점이었습니.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가 주르르주르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굳은 날씨라도, 노들 사람들의 부푼 꿈을 깰 순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끈끈하고 끈덕지게 삶을 위해 싸워온 활동가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멋진 사람들 앞에 서서 사회를 본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영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노들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도 없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노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점, 그리고 이곳에서 알게 된 활동가들, 활동보조인분들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들 파이팅!

배추맘 배추파파 프로젝트, 보고합니다

≡ 박정수

2016년 3월에 『비마이너』 객원 기자로 일하려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사 쓰는 대신 꽃 가꾸고 농사짓고 있다. 내년에는 '노들 장애학 공리소'에서 공부하면서, 또 옥상에서 농사지를 계획이다.



유리빌딩 6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옥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가끔 먼 산 보러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아, 농사짓기 참 좋은 옥상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쌤이 "옥상에 텃밭 만들면 어떨까요?"하고 물어왔다. '장판에 오래 있더니, 이 사람 독심술이 생겼나?' 지자체 지원 받아서, 낮 수업 학생들 데리고, 수확물은 4층 주방에 납품하자고 하신다. '하여간, 일 키우는 데는 뭐 있다.' 하지만 난 움찔했다. 공원에 게릴라 텃밭했다가 공원 녹지과와 충돌한 적도 있고, 한강 노들섬에서 텃밭 농사를 지어 수유너머R 주방에 대 보기도 했다. 해 보니, 겉으로 보고 머리로 그리는 것보다 성과가 별로다. 우선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칫 관에 기대면 내부 동력과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시중 농산물에 비해 텃밭 수확물이 가격, 품질, 수급의 편리 면에서 결코 낮다고 할 수도 없다. 요리하는 입장과 농사짓는 입장이 어긋나, 귀찮은 마음과 서운한 마음만 커지기 십상이다. 그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기억과 옥상

의 햇볕에 이끌려 어떤 형태로든 옥상 텃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교장 쌤이 건물주의 허락을 받는 동안 나는 종로구청에 지원 가능한 사항을 문의했다. 내가 아는 모든 건물 주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세입자가 옥상에 뭘 하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 게다가 유리빌딩은 소유자가 두 명이라 양쪽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투쟁과 협상의 달인 교장 쌤은 그 어려운 걸 해 냈다. 반면에 내가 맡은 구청 지원은 여의치 않았다. 옥상 텃밭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1,000여만 원 중 자부담 10%에 건물 구조안전성 검사 비용 100만 원까지 든다고 해서 포기했다. 또 '싱싱텃밭'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 옥상 텃밭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내년 봄에야 신청할 수 있단다. 그럼 공원 녹지과에서 쓰고 남은 흙이나 텃밭 상자라도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없단다. 나는 역시 '관운'이 없다. 다그만 돌까 했는데, 교장 쌤이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내는 바람에 안 할 수도 없다. 아니, 못할 이유도 없다. 관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관심과 자원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옥상 텃밭의 목적도 수확물이 아니라 농사 체험과 재미에 맞추는 게 좋을 듯했다. 노들야학 학생들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일단 작물은 배추로 정했다. 어차피 봄 농사는 늦었고, 가을 농사의 백미인 배추 농사라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듯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경작보다는 한 사람이 한 포기 배추를 책임지고

길러 수확물도 갖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배추 씨를 뿌려 짝을 틔우고, 돌보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배추맘 배추파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노들야학 교사 누리 씨의 도움을 받아 야학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카톡에 대화방도 만들었다. 또 진수 씨의 도움으로 야학 지원금을 받아 거름과 흙을 샀다. 그걸로 부족해서 나는 1층 화단의 흙을 퍼 오기도 하고, 경기도에 사는 지인의 텃밭에서 질 좋은 발효과 유기농 거름을 얻어 왔다. 교장 쌤 활보 증호 님이 옥상 화장실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주셔서 물 문제가 해결되었고, 『비마이너』의 같기자 님이 흙과 거름을 섞어 마대 자루에 옮겨 담은 막노동을 도와줬다. 정숙 님의 유쾌한 관심과 일본인 친구 유리 씨가 얻어다 준 토종 씨앗도 큰 힘이 되었다.

7월 마지막 주, 드디어 배추씨를 심어 배추맘 배추파파 되기에 돌입했다. 신청자는 종이컵에 이름을 쓰고, 배양토를 넣고, 토종인 개성배추나 구역배추, 개량종인 황금노랑배추 씨앗 중 하나를 심고 물을 주었다. 경남, 주원, 정란, 유리, 정규, 증호, 진수, 도현 씨는 속이 짝 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금노랑배추씨를 심었다. 그리고 정숙, 명학, 상연, 탄진, 애경, 동림, 누리, 필순, 경석, 헤민, 한별, 홍식, 유미, 형호 씨는 자립 농사의 뜻을 담아 토종 배추씨를 뿌렸다.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씨앗을 처음 뿌려본다고 했다. 씨앗을 흙에 묻고 물을 흠뻑 주고선 "이게 끝이야? 이러면 썩이 난다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농사의 재미 중 팔 할은 싹 나는 재미다. 매년 보면서도 매년 신기하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씨앗이 흙속에 묻혀 물 한 번 머금었다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어 뿌리가 나고, 그 뿌리의 밀어 올리는 힘으로 땅을 가르며 싹이 움트는 건 정말이지 기적 같다. 씨 뿌린지 이틀 만에 조그만 네잎 클로버 같은 배추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배추맘 배추파파들은 환호했다. 싹 튼 후에는 물 관리가 중요하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웃자라게 되고, 깜박 잊고 사나흘 안 주면 말라 죽는다. 카톡 대화방에서 공유하여 번갈아 물을 주었지만, 기록적인 폭염 때문인지 배추 모종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 어쨌거나 8월 마지막 주 텃밭 상자에 옮겨 심기를 시작했다. 텃밭 상자는 각자 주워온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했다. 돈도 안 들고, 가볍고, 2년 정도 쓰다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된다.

모종이 너무 안자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옮겨 심고서는 달라졌다. 계분 거름을 충분히 섞어 한 달 동안 숙성시킨 흙의 효력이 나타났다. 손톱 만했던 배추 모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서 열흘 만에 손바닥 만해졌다. 뜻밖에도 토종 배추가 발아율도 높더니 성장세도 좋다. 배추 농사에서 가장 성가신 게 벌레 잡는 일이다. 옥상이고, 첫 농사라, 배추흰나비가 안 올라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가차 없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지 배추흰나비가 몇 마리가 보이더니 배추 잎에 구멍이 송송 뚫리기 시작했다. 농약을 치지 않는 한 이 놈들은 일일이 손으로 잡아 죽이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

명학이 형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연민에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농사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농사는 생물학적 전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농사의 출발점’이라고 믿는 나는 분명히 벌레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틈틈이 옥상에 올라가 배추 잎을 일일이 들춰 수색했으며, 잡은 애벌레는 가차 없이 발로 밟아 사살했다. 하지만 벌레와의 공존을 바라는 정 많은 배추맘 배추파파들의 방조 때문

에 배추벌레와의 전쟁에서 나는 반쯤 패배했다. 몇 포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배추가 벌레에 의해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2 가량 먹혔다. 김도현 배추파파의 배추는 속잎 몇 장만 빼고 망사처럼 명맥, 아니 잎맥만 남았다.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배추벌레와의 전쟁과 그 후 진딧물과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배추들은 그제야 평화롭게 속을 채워갔다. 하지만 토종 배추들은 속도 잘 안 차고, 이파리 끝이 말라갔다. 반면에 개량종 배추들은 뒤늦게 두각을 드러내며 결국(동그랗게 오므라들면서 속이 차는 모양)을 형성했다. 씹쓸하지만 개량종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첫 번째 주 서리가 내렸다. 수확할 때가 된 것이다. 애초에 날을 잡아 다 같이 수확하고 배추전 부쳐 먹고 기념사진도 찍자고 했는데, 다들 너무 바쁘다. 약속한 날 아무도 안 왔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확하고 집에 가져갈 사람은 집에 가져가고 4층 주방에 기부할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애경, 탄진 부부는 집에서 걸절이 담근다고 해서 부모 없이 내가 기른 배추 몇 놈도 팔려 보냈다. 명학이 형은 반쯤 벌레 먹은 배추를 꺼안고는 연신 “씨만 뿌리고 물도 못주고, 주인 잘못 만난 배추한테 미안해!” 했다. 그 배추는 다른 배추들과 함께 4층 주방 아주머니에 의해 구수한 배춧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세 번에 걸쳐 출출할 때 배추 한 포기씩 뽑아 배추전을 부쳐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조금 질긴 감이 있지만, 배추 향이 강하고 고소했다.

이렇게 해서 유리빌딩 옥상 텃밭 첫 번째 사업, ‘배추맘 배추파파’ 프로젝트가 끝났다. 대충 평가해 보면, 일단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25명)이 참여했다. 물론 씨만 뿌리고 방치한 사람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준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하는 방면에 내가 소질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같이 하자고 말하기보다 그냥 내가 해버린 일이 너무 많다. 조직화의 방식, 동원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교장 쌤이 종로구청 점거하러 갔다가 구청 옥상 텃밭 사진을 찍어 왔다. 그러면서 우리도 내년엔 지자체 지원 받아서 대규모로 옥상 텃밭 조성해서 주방에 납품하면 안 되냐고 또 조르신다. 반쯤 벌레 먹은 교장 쌤 배추를 안겨 드리면서,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유기농 텃밭농사로 우리 주방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기란 너무 어렵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작물을 공급하는 게 쉽지 않고, 품질도 보장하기 어렵다. 주방 공급은 부대 효과로도 충분하고, 주된 목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농사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년 봄에는 구청에서 텃밭 상자를 30개 정도 단체 분양 받아서 올해보다 두 배로 규모를 키울 생각이야. 그리고 한 사람 당 두 가지 작물을 전담하여 기를 수 있게 할 생각이다. 만약 낮 수업 반 학생들이 수업 삼아 공동 경작을 한다고 하면 보조교사로 도움을 줄 의향도 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농사짓자!



【노들아 안녕】

노들야학의 새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를 산책하는 것도 좋고, 마당에서 앞산을 바라보며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듣고 스쳐가는 바람도 느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자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자연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노들에서 일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저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막연히 배려하고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들에 와서 많이 듣고 또 성찰을 하게끔 했던 말이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들어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들 사람들에게 한 말씀!

처음 노들에 왔을 때는 생소하고 특이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점점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노들에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은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 세요.

안녕하세요~ 노들야학에 회계 담당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희은입니다.

노들은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지인의 소개로 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열심히 일한 뒤에 갖는 휴식 시간과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 근처

*김수지



저의 이름은 김수지입니다. 저는 은평 기쁨의 집에서 살다가 8월 24일에 노들 자립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홈에는 저 말고도 명선 언니와 세빈 언니와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에 다니게 돼서 좋습니다.

*박기훈



저는 서른여섯의 박기훈입니다. 35년 간 집에 있다가 목사님 도움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까지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살 때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어 어머니가 산소마스크를 벗겨 버렸는데, 아버지가 다시 씌워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 공부 잘하는 형하고 비교 당하고 글씨를 모른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은 센터에서 소개한 형과 함께 삽니다. 집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들야학에 다니며 공부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건 힘들지만 학교에 다녀서 즐겁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치아 경기를 합니다. 대회에 나가 우승도 하고 상도 받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안홍경



안녕하세요. 노들야학 신입 학생 안홍경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난 날이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기억이 없습니다. 치아수는 치과를 다니면서 발치를 해서 10개 밖에 안 되고, 시력은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보일 정도로 안 좋아서 꼭 안경을 써야 합니다. 소원은 로또에 당첨돼서 장가를 가고, 통일된 조국에서 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야학에 다니며 선생님들께 아낌없는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0년 전 만해도 집에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 좋은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지



저는 망우동에 사는 조상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구리에 사는 엄마 곁에서 어린 아이처럼 살았어요. 어리광을 부리면서 때를 막 쓰며 살았어요. 활동보조 이모를 통해서 마로니에공원에 있는 노들야학을 알게 됐어요. 야학에 다니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예쁘고 저한테 잘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어요. 노들에 다니게 되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노들아 안녕】

센터 판의 신입 코디 심보름입니다

심보름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아직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버린 가을이네요. 지난 2개월간의 수습 기간은 제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습을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의 변화와 수습 기간 동안의 느낌,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무언가 남다른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반겨주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아래 센터 판) 식구들 덕분에 저의 밝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살려나갈 수 있도록, 자기 분석을 통해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2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느낀 점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

니다. 첫 번째는 코디 업무에서 느낀 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벽찬 업무량이었음에도, 힘든 기색 없이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유지영 코디님. 그런 노하우에 감탄했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실수가 잦았음에도 쓴 소리 없이 격려와 칭찬으로 에너지를 주신 덕분에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부분 대화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로 저를 이끌어준 유지영 코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석입니다. 스스로 분석한 저의 약점은, 경험에서 나오는 안이함과 욕심이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시설에서 여러 힘든 일을 겪어서인지,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에 업무를 임의적으로 혼자 처리하려다 난감한 상황을 겪곤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업무를 열의로만 임하려했던 저의 오만함을 느꼈으며, 앞으로는 세세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입니다. 살아생전 집회에 참여해본 적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도 엉망이고 후진적인지는

센터 판에 와서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방향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장기적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현재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저의 강점을 가장 잘 발휘 할 수 있는 나만의 분야를 찾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만 큼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들 식구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일기】

천천히 즐겁게 함께

≡ 박여의

야학 1년차 교사이자 최유리 학생의 활동보조인.
6년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큰일.
싫어하는 것은 물가와 생선 그리고 오르막길.
취미는 상대모사(주로 성대모사)로,
최유리 학생의 어머니 박해숙 님의 성대모사가 제일 자신 있음.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박여의입니다. 현재는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노들야학의 낮 수업 및 저녁 수업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노들에 있는데, 집이 너무 멀어 반 정도는 노들 거실(?)의 자바라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주 거주지는 벽제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효녀 코스프레'를 즐겨하기 때문에 외박권을 최소 하루 전에는 결재 받았었는데, 요즘은 1시간 전에도 결재를 올려서 엄마가 버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원고를 빨리 주지 않아 교사대표 진수 형이 버르고 있는... 아,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비자발적 글쓰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생각해보니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었던 것 같은데, 방학숙제로 써간 한 달 동안의 일기를 선생님이 확인하더라고요(뜨악). 빨간 펜으로 맞춤법도 지적하면서 '재밌었겠구나' 따위의 코멘트를 달았던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던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아직까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흑흑. 사실 이렇게 얘기를 쓰다보면 적당히 양이 채워지지 않을까란 기대도 했습니다만... 못한 여의는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느끼는 낮 수업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가자!(Ver. 소민이가 나를 집에 초대할 때)

... 무슨 수업을 하고 있나요? ...

월요일은 주말 이야기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화요일은 만들기와 외국어 한마디, 수요일은 공작수업, 목요일은 시 쓰기 수업, 금요일은 연극수업과 댄스수업을 하기로 우리끼리 결정했는데, 임당 쌤과 번갈아 수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매주 같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하구요. (지원 사업이 끝난 지금은 펠로디언 수업이 추가 되었어요.)

또한 낮 수업 안에서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수업과 연동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에 문제가 생긴 학생과 양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건강한 치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는 매일 수업 전 양치한 사람에게 스티커를 부여하고 그 스티커를 모아 연말에 양치 왕을 선출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조금 유치한가요? 치통으로 골치를 앓고 가

끔 틀니를 책상위에 올려놓아 모두를 식겁하게 만들었던 지민이 형이 양치 왕이 되기 위해 열심히 양치질을 하게 되었다면 과정은 조금 유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흐흐

아,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의 컴퓨터 사용 및 음란물 시청과 관련하여 학생들끼리 자체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주 의견은 '교육용 컴퓨터다', '이기주의다' 였는데, 당사자는 "나를 차별하는 것이냐"라며 끝까지 음란물 시청권을 고수하려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결국 긴 토론 끝에 "모두가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란 말을 남기며 야학 내에서는 자제하겠다고 했고, 어길 시에는 노들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어마 무시한 다짐도 하였네요. (그 이후로도 제보가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형,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실 '매뉴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현재의 낮 수업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 유력한 양치 왕 후보 두 명이 양치 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까지는 글, 그림, 음악 등을 각자의 방식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한글과 수를 아는 학생은 소수이기도 하고, 어느 방식으로든 표현 자체가 힘든 학생도 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내고 타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업할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

암만, 많고 많구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들입니다. 나들이 때 길에서 만나는 낯선 시선들은 학생들과 힘껏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고, 낯 수업반을 들여다보며 ‘매일 낮에 나와서 뭐해?’라고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부대급 속에서 찾아낸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을 부정적으로, 혹은 의아하게 보는 시선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성인이 된 한 친구는 잘 달래지 않으면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오버 액션을 좋아해서 놀이 형식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제가 찾아낸 소통 방식인데요, 저도 성인이 된 친구에게 어린이에 대한 듯한 이 방식에 늘 불편함을 안고 갑니다.

그러나 학생을 달래는 저의 모습을 지적하거나, 학생의 태도를 이상하게 보는 것, 혹은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학생에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눈길 등 다양한 그 시선들은 더 어렵고 불편해요. 저도 무엇이 맞는지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에 따라 받아줄 때도, 단호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통점은 학생이 당장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으로 보일수도, 규칙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내가 소통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돌발 행동의 퍼레이드이지요. 예를 들어 식단 조절이 필요한 학생이 있어 설명을 하고 수업 내에 규칙을 만들면, 꼭 한 번씩은 과자나 음료수를 가져오는 학생이 있어요. 나눠먹으려고 가져온(혹은 아니더라도) 학생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 어서 저 과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다시 감추기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상한다면 그날 수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평소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묘한 긴장감을 ‘빵~’하고 터뜨려주기까지 한다면... 아, 갑자기 울고 싶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흔들리는 교사, 그러니까 바로 저 여의입니다. 학생 중에는 의사 표현에 소극적이거나 대답의 폭이 넓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율적인 대답을 기다리면 진행이 힘들 때가 있지요. 원활한 진행이 뭐 그리 중요하나며 기다리자 할 수도 있지만, 일대일이 아닌 수업에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를 제시하면 늘 제시한 보기의



▲ 수업보다 술래잡기가 하고픈 너

마지막 것에 긍정을 표하곤 합니다. 최대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다가 제시하더라도 그렇지요. 폭넓은 생각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 그저 내 생각을 따르게 한 것 같은 그 대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들고, 더 나은 교수법(?)을 찾지 못한 것 등 여러 가지로 회의감과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아요.

또 교사로서 나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걸

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예를 들어 수업 자료로 쓰일 동영상을 검색하려고 보면, 19금 영상이 TV창에 도배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이 감정을 숨기진 않아요. 천천히 나의 생각을 얘기하며 대화를 하지요. 사실 부탁을 드리는 쪽에 가깝긴 하지만, 무엇보다 저의 개인적인 불쾌감을 안고 느리게 기다리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

#1 재미있다고보다는 제일 최근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낮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시간 전에 M이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주위 편의점과 슈퍼를 다 돌았는데 5번째로 간 슈퍼에서 ‘1시간 전에 왔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갔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누가 먹을 거준다고 따라갔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질질 짜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20분을 돌아다니다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이미 구입한 카스텔라 한 상자를 들고 호떡들을 쳐다보고 있는 M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보자마자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나를 보며 했던 M의 첫마디는 “왜영?”이었어요. 그것도 ‘M표 광대승천웃음’을 날려주면서요. 그런 M과 야학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시다.

#2 혼자 수업하는 날이었는데 수업하다가 처음으로 목이 쉬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저는 “한 명씩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목이 아파서 너무 힘

들어요”라고 우는 소리를 했더니, K언니가 “여의 쌤 힘들어. 아무나 빨리 들어와”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하하. 그리고 저한테는 “어, 그거는 힘들면, 어, 토요일에 혼자 물어봐. 그럼 되지”라는 주옥같은 조언도 해주셨어요. 이 외에도 항상 본인만 안 웃긴, 진짜 웃긴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줘서 활력소가 되요.

#3 이 외에도 매일 “귀염둥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유머러스한 야학 만담꾼 K. 살아있는 루피(보로로에 나오는 캐릭터)를 갖고 싶다는 N. 말은 정말 많지만 그만큼 주변사람 다 챙겨주느라 바쁜, 준비된 사랑꾼 P. 남다른 패션센스가 돋보이며 타인의 변화에 민감한, 커피를 좋아하며 양치를 사랑하게 된 J. 낮 수업의 노래시간을 제일 좋아하며, 스캇과 판소리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성깔 대마왕. 요즘은 하대하기에 맛이 들린 듯, 등장과 함께 ‘야’를 찾는 S(활보 중일 때도 “너, 이리 와봐”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마지막으로 전화하기가 취미인 H형은 낮 수업에

서 행동대장이었는데 요즘 한동안 못 봤네요. 영
상통화 말고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전화하니까
생각났는데 하루에 한 사람한테 28통이 온 적도
있어요. 하하하.)

...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

결국 낮 수업 안에서의 '규칙'이란 어떻게 만
들어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제일 큰 딜
레마인 것 같아요. 장애 특성 때문에 지키기 어
려운 '규칙'을 만들고 적용시킨다는 게 또 하나
의 시설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는 생각하지만 저도 '규칙'이라는 단어에 낯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낮 수업
이란 공간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무조건적인 배
려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

아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
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해요. 그것이 좋음이던 불편함이던, 혹은 야학
안전이건 밖이건 말이에요. 이걸 정말 중요한 것이
고 나아가 낮 수업이란 공간, 낮 수업팀에만 국
한되면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는 계속 부대끼며... 아... 투쟁! (적절한 단어가
투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 나가며 ...

컨디션과 반응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갈등이 갈등을 낳는 이 버라이어티한 낮 수
업팀 안에서 여전히 고민만 남은 이 시점이 무겁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천천히 즐겁게

함께' 지내고 싶어요. 주옥같은 에피소드를 다
담지 못하여 아쉽네요. 궁금하시다면 수업 참관
을 권유해봅니다. 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아
야하니 하루 전날에는 예약 필수! 다음에 봐요~



▲ 미술관 견학 후 돌아오는 길. 불려도 돌아보지 않는 주원이형이 인상적이다.

【현수막공장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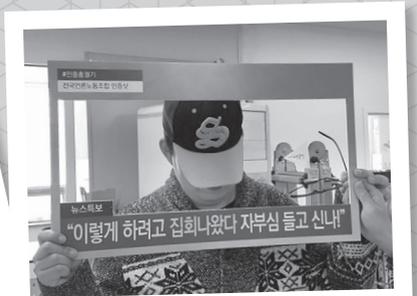
노란들판의
2016년 하반기는요

노란들판

장애인/비장애인 노동자들이 함께
현수막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끝없이 줄지어선 작업지시서



11월과 12월에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관련된 주문이 많았어요
인증샷도 한 번 찍어보고



디자인 교육 중
열정이 넘치는 공장의 디자이너너분들

현수막공장 노란들판은 올 한해도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왔네요. 최근에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좀 더 정신
없이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노란들판이 『노들바람』에 소식을 전한지 오래되어, 한해 마무리 겸 공장의 하
반기 소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저희는 요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C100 팀장님의 입사 10주년

2016년 8월 1일은 박시백 팀장님의 입사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모인 자리에서 축하하면서 선물도 전달하고, 공장 분들의 마음이 담긴 예쁜 롤링 판넬도 전달했지요. 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일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해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노란들판 하계 워크숍 (by 조아라)

노란들판은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강원도 고성 삼포해변으로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공장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노란들판 역사상 처음으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이번 워크숍의 슬로건은 ‘놀고 시핍~ 10UP!’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놀고 싶은 마음, 매출액 10% Up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 슬로건을 이용해서 개개인이 하고 싶은 것이나 소망을 적어서 ‘나는 ○○하고 시핍!’ 현수막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삼포해변에 도착해서 첫날은 물

놀이도 하고, 물놀이를 못한 사람들은 주변 관광을 하고 짬라인과 보트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민구 샘이 진행되는 인권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때 진행한 서로의 얼굴 그려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다들 재미있어 했던 걸로 기억해요.



9월

일본 직업공동체 왓빠를 만나고 오다! (by 나해니)

● **언제?** 2016년 9월 21~25일

● **누가?** 산, 봉, 찬이가 노들센터, 전장연, 나야, 장애인인권영화제 활동가들과 함께.

● **왓빠를 통해 배운 점:** 그 사람다운 모습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 45년 동안 평등하게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 차별과 싸우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독심.

● **생각나는 가장 좋았던 장면:** 교토 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버스 안의 장면. 가는 내내 들뜬 마음으로 신나고, 즐겁고, 정답게 얘기하던 왓빠 사람들과 그날의 분위기.

● **왓빠를 다녀오고 난 뒤의 변화:** 노란들판에서 일하며 드는 고민들에 대해, 어떤 지점들은 왓빠가 실천해온 방법들을 잘 곱씹어보면 뜻밖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공장 구성원들 각자가 느끼고 있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고됨을 앞으로 좀 더 잘 나눌 수 있겠다는 근거 없는 정신적 여유로움.

●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도 왓빠에 가고 싶다. 공장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 **봉이의 후기:** 나보다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일본의 왓빠 공동체를 보고 왔다. 그들은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동료와 함께여서 즐거워하고, 오늘의 삶이 주어진 것을 기뻐했다. 그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힘든 시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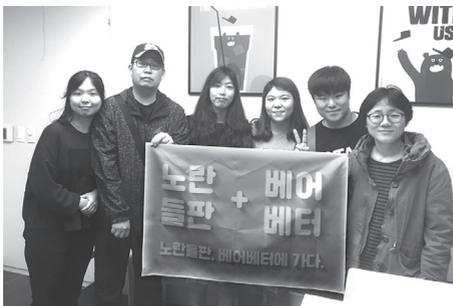
10월

베어베터 방문기 (by 송주훈)

10월 25일, 몇몇 분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방문했습니다. 베어베터는 전체 직원 약 200명 중 발달장애인이 80% 이상으로, 인쇄·화훼·커피·배달·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어베터는 “Bear makes the world better”를 줄인 말이라고 해요. 이곳의 상징인 곰(Bear)은 발달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담은 캐릭터이고,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Better)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곳은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해 수익이 생기면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입사 조건은 단 하나,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된다고 합니다.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하면 각 분야별로 순환하며 교육을 받고 각자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구요.



회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귀여운 곰 캐릭터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는 노란들판보 다 몇 배나 큰 규모에 놀랐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캐릭터를 회사의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포장용 박스 및 테이프 등의 물품에

활용한 것이나 배송용 가방에 투자해서 전문성을 강조한 부분 등이 인상 깊었고, 공장에서도 활용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같이 방문했던 공장의 한 분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에 게임기가 있는 것을 매우 부러워하며 노란들판에 돌아와 제안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업무의 단순함이나 연계고용이라는 부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노란들판이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방문이었습니다.

11월

일본 호쿠오카 여행기 (by 김민호)

나에게 노란들판은 삶을 일구어가는 일터이자 하나씩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어떤 심이 필요했다. 7년을 다니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딱히 없었고, 그래서 이들의 연차를 내고 주말을 끼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본여행. 이번 여행은 10년만의 해외여행이고 일본은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다. 한껏 들뜬 기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호쿠오카. 나가사키와 뱃부를 거쳐 세 곳을 여행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렌터카를 타고 긴 고속도로 질주하면서 3박 4일의 여행이 시작되었

다. 앞이 뺨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차를 타는 시간은 길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니 즐거웠다.

일본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온천이다. 나가사키 온천과 뱃부 시기노이 온천 호텔 두 군데를 방문했다. 뱃부 호텔은 4성급 호텔이다. 말로만 듣던 곳에 가보니 왜 사람



들이 여기에 오는지 알게 됐다. 아무튼 동생한테 많이 고맙다. 실내 온천과 실외 온천이 있었는데, 실외에서는 바다와 도시가 한 눈에 보였다. 정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분을 모를 것이다. 정말 최고였고,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또 감사했다.

장애인에게 해외여행은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힐링의 시간이 되어 주었다.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 멀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사람

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가 아닌 바로 가까운 곳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기 보다는 내 옆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행복은 가까이 있음을 느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내 삶의 여행은 이제 또 시작이고 현재진행형이다.

SK SUNNY와 함께 친환경 브랜드를! (by 송주훈)



▲ 노란들판 식구들과 SK SUNNY의 대학생들이 함께

2016년은 노란들판이 10살 된 해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란들판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두구두구두구~~ 바로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올해 하반기 SK SUNNY(SK 대학생 자원봉사단)와 함께 노

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 BI와 친환경 브랜드를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 SUNNY는 자원봉사 및 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SK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인데요, 노란들판은 사회적기업 서포터즈 분야의 대학생 5명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구를 지향하는 친환경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들

판의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과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친환경 브랜드가 많이 궁금하시죠? 곧 찾아올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2016년 노들장애인권 교육센터 이야기

≡≡≡ 현정민 간담회 속기

≡≡≡ 배승천 진행 및 정리

(어느 해가 그렇지 않았을까마는)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6년, 노들장애인권교육센터에도 여러 걱정과 변화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잡은 마지막 모임, 들다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올 한해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승천** 노들장애인권교육센터 2016년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짹짹)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은 인권강사 활동을 얼마나 하셨죠?

• **재연** 8년을 했어요.

• **민구** 노들 인권교육은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8년 됐네요. 재연은 초기부터 참여한 멤버입니다.

• **승천** 벌써 8년이 되었군요. 재

연, 명학, 형호처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활동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초기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재연**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했었지만 그 고비를 넘겨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다 고생스러우니까.

• **민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권운동 활동의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작지만 소득이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횡수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일로써 느껴지게

되었던 것도 같네요.

• **재연** 솔솔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다 보니, 지금은 그냥 일이나 하는 거지, 라는 마음도 있어요.

• **민구**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이나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 **승천** 그 긴 기간 중에서 지금은 조금 안 그런 거라면, 재밌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유치원에서 재연 선생님 너무 좋았다면서, 다음에 강의를 의뢰할 때도 재연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다

고 특별히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 **재연** 물론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이제 재미보다는 이것마저 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 **민구** 고 지점에도 동감합니다. 재미보다 내게 남은 의미로 하게 되는 것. 다 그렇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하다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 **애경** 난 돈을 떠나, 학교 가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쉬는 시간에 또 질문이 와요. 애들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학생들을 만나니까,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좋아요. 새로운 아이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 **민구** 어린 친구들 만나면 에너지 많이 받아서 좋아요?

• **애경** 물론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애들도 있지만 듣는 애들은 또 열심히 들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진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열심히 해보고 싶어

요. 잘 못한다고 안하면 더 못해.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봐야 겠단 생각이 들어요.

• **승천**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미진 선생님은 올해부터 활동 하셨죠?

• **미진** 올해 횡수로 치면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인권 강의는 처음이잖아요. 일단은 아직 제가 인권을 이야기 할 만큼 자질을 가지고 있나,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제 전공 분야의 강의는 정말 오래 해왔었는데, 인권이란 거는 어떤 그냥 과목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권 강의는 어떤 강의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안에서 어떤 감흥,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 지루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탄진이 형이랑 나갔던 교육이 생각나요. 중학교였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떨 수가 있을

까 싶을 만큼 많이 떨었어요. 놀랍게 많이 떨었어요. 떨면서 연극으로 수업을 풀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인권, 장애인권을 말하게 되었다는 게, 제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 **승천** 기억에 남는 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 **준수** 월촌 초등학교였나? 다른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학교는 유난히 계단들이 많았어요. 그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간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말이 뭐였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ㅋㅎ 인권 강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기회도 거의 없고, 그리





• **준수** 그래요, 강의 해도 별 반응이 없을 때. 내가 강의를 하러 온 게 맞나 싶고, 뽕뽕하고, 숨고 싶고.

• **승천** 그렇게 반응이 없고 뽕뽕할 때 헤쳐 나가는 자선만의 방법이 있나요?

• **민구** 저는 그럴 땐 늑처럼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평소에 고민을 잘 안하게 되고, 나가는 습관대로만 나가다가 그럴 때 턱턱 걸리는 것 같아요.

• **승천**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을 때가 많았던 거 같아요. 이야기길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강의 준비가 많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는 청소년 인권이나, 북한이탈주민 인권 문제를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들어보기도 했었잖아요. 이 외에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인권이 있을까요?

• **준수** 나 같은 경우는 성 소수자. 지금도 선입견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거든요.

• **민구** 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시설 종사자들, 학생들이든... 깊이 들어가면 내 밀친이 드러나 바닥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승천** 저 같은 경우 아수나로가 와서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 해줬을 때, 아, 내가 정말 모르고 많았구나 느끼면서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더 많은 영역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교육가의 자세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어요?

• **혜선** 구체적으로 뭐예요?

• **승천** 예를 들면, 청소년 인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보호의 관점을 다 버릴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 **미진** 제게 어려운 부분은요, 우리가 파트너랑 짝이 되어 교육을 나가게 되잖아요. 파트너랑 같이

나갈 때 호흡이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마음가짐이 똑같은 손 없는데,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나,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는 기운이 많이 빠져요. 아무래도 비장애인 강사가 좀 더 많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분명하건 당사자 강사가 많은 에너지를 뿜어낼 때 더 교육이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와 늘 이야기를 해 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탄진(미진의 파트너)** 그건 내가 잘못했어.

• **미진** 다른 팀들은 어떻게 궁금해요. 혼자 해보니까, 당사자인 탄진 형과 같이 가는 수업의 파급력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 **민구** 그것이 늘 우리들의 숙제였어요. 강의안에 내용을 풀어내는 방식이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는 방식과 내용들로 채워졌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자발성의 문제도 있겠고. 자발성은 강사비를 더 받으면 되려나?

• **승천** 얘기한 것처럼 강사가 두 명이 짝이 되어 나가는 팀이 많은데, 이럴 경우 한 사람은 그저 조력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수업에 힘이 좀 빠지죠. 올해는 혼자 나가는 팀도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 **미진** 재연은 둘이 나가도 본인 위주로 진행을 해요.

• **재연** 혼자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은 없어요.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두 시간동안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한 시간 하는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괜찮더라고요.

• **혜선** 그럼 한 시간일 땐 혼자 가고, 2시간일 땐 둘이 가고 하면 되겠네요.

• **승천** 학교에선 보통 한 시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강의비도 2시간 수업을 진행해도 대부분 1시간 강의비만 받고 있지.

• **혜선** 두 명의 강사가 함께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2시간이 좋은데, 혼자 가면 자신만

의 방법으로 하니까 1시간이 더 좋겠네요.

• **미진** 저번에 한 시간을 함께 가봤는데 괜찮았어요.

• **혜선** 만약 애경 언니랑 한 시간을 하면 많은 내용을 쳐내야겠네요.

• **탄진** 한 시간 강의 하면 나도 혼자 나갈 수 있습니다. AAC(보완 대체의사소통) 기구를 활용해 혼자 해보고 싶어요.

• **혜선** 그럼 진짜 한번 준비해서 보여줘요. 다음에 가지 않더라도 보여주면 같이 만들어나가면 되지요.

• **민구** 인권교육을 하면서 노들은 여러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어요. 두 시간이고, 둘이 나가고, 집단교육 안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비판하는 기존의 장애 이해 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선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었죠. 현실적으로는 한 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 원칙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부터 있어야 할 것 같네요.

• **미진** 그리고 고민 되었던 부분들. 수업이 취소되거나, 갑자기 잡히거나, 금액 정리가 빨리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물론 관리자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힘들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못할 것 같아요.

• **승천** 어디는 학교에서, 어디는 교육청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건, 우리는 강의 를 잘하기 위해서 두 명의 강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요청한 곳에서는 한 명만 오는 걸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그래서 아주 적은 강사비만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챙기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 **민구** 사실 강사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연말이고 내년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 일 테니,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 한 명한테 교육비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까지 가지 않던 곳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승천** 강의를 나가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걱정이 들어요.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아요. 한 번에 3팀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사 풀을 더 늘려야 하나 싶다가도, 강의도 많이 못 나가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 **민구** 강사들도 많고 강의들도 많고, 재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신의 직업

이 될 수 있도록 일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 **혜선** 승천이 다른 일도 바쁘는데 혼자 하기가 벅찰 것 같기도 해요.

• **미진** 강사 팀을 확장하고 더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려면 실질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힘든 것 같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올해처럼 이루어진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 **혜선**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 **미진** 현장에 교육을 나가는 강사로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막막해요. 더 커지면 좋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담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 **민구** 우리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의견이 어떤지 함께 모아보고,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야학에 제안해 볼 수도 있겠지요.

• **재연** 이렇게 알바처럼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써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알바 같아요.

• **승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가보려고 하기도 했었죠. 자생력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학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권강사 라는 게 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들이 인권강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야학 교사로서 혹은 장애인권운동의 당사자로서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재연** 오히려 알바 형태로 하는 것이 내 강의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 **민구** 그렇지요, 직업이 되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승천이 이야기 했지만,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야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혜선** 저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 알바라고 생각 할지 고민을 안 해 봐서요. 근데 지금 야학 구조 안에서는 힘들지 싶네요. 그러려면 진짜 센터를 차려서 나가야겠죠. 전담 인력이 있어야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좋네요.

• **미진** 지금으로서는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강사 인력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 **승천**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 횟수만 본다면 어떤 센터 못지않게 많습니다. 만약 전담 인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쪼단면 자생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 인권 강의를 하고 싶다고 다가올 때 열려 있는 공간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어렵네요. 학생

적인 공간과 직업으로서의 인권 강사, 인권교육을 위한 원칙이 지켜지고 야학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인권센터. 양쪽 다 되면 좋겠는데, 둘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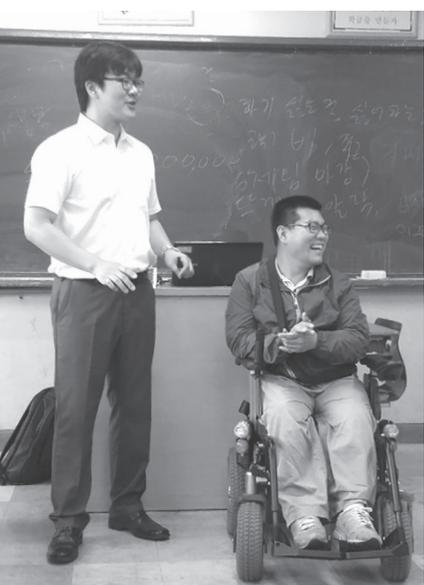
• **혜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여러 고민이 드네요.

• **승천** 우리 모두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권강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단 생각도 들어요. 방학동안 다음 학기를 위한 영업(?)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할 것 같네요.

• **애경** 내년엔 파트너 안 바뀌요?

• **승천** 고건 나중에 이야기 해 봅시다. 파트너가 영 맘에 안 드는 분이 계시면 따로 이야기 해주세요. ㅎㅎ 올해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들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는 노들야학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인권을 공부하고, 초·중·고등학교, 각종 단체, 시설, 교사 및 공무원 연수 등에서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장애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연락주세요! ☎ 02-766-9101



광화문농성 1,500일, 일상으로의 초대

☞ 박누리

노들야학의 상근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500일,
2박 3일 투쟁캠프에 단원으로 함께 했다.

‘사람이 사는 광화문 역사 농성 4년, 일상으로의 초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4년을 맞아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다. 100일, 200일, 1,000일을 넘어 1,500일을 지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은 하나의 투쟁으로 시작해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 투쟁이 일상이 되어 버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더해 2017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쟁취의 이야기를 가지고 2박 3일의 투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투쟁캠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로 시작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결의에 찬 발언이 있었고, 하자센터의 페스티벌 친구들이 투쟁캠프의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힘을 받은 투쟁캠프 단원들은 여의도에 모여 있는 나쁜 정당들을 만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다.



행진 경로는 광화문에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까지 근 8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리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대문역을 지나 공덕역에 도달했을 즈음, 중증장애인들이 하나둘 휠체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보하라’고 외치며 아스팔트 위를 기기 시작했다. 그런 동지들에게 다른 동지들이 무릎보호대와 장갑을 끼워주었다. 매끈한 방바닥을 기기도 쉽지 않을 그들이 거친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들의 절박하고도 결사적인 심정과 와 닿자 장엄한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의 일정 때문에 끝까지 기어서 목적지에 갈 수는 없었다. 동지들은 공덕역 오거리로 지난 후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 생채기를 입었다. 직접 긴 사람들은 몸에, 그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마음에 각자의 생채기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저녁을 먹었다. 도착해서 얼마간 경찰과 마찰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 새누리당으로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마포대교를 건널 때 우리의 친구 야마가타가 와서 우리의 행진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언제나 멋진 야마가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나고 유쾌한 노래와 퍼포먼스로 투쟁단원들의 사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거리가 긴만큼 행진이 진행될 시간도 여태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진행한 행진 중 제일 길었다. 오후 3시쯤 시작한 행진은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보이는 듯 했다. 새누리당 당사가 저만치 보이는 동시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이 시야에 들어오며 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동안의 실랑이가 있고 나서 우리는 새누리당 당사 사거리에 앞에서 잠을 청했다. 정말 길고 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행부라서 중간 중간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며 갔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썩으로 그 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노들야학 학생들과 다른 투쟁단원들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쿨쿨 잠이 들었다.



둘째 날이 밝았다.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해 첫째 날의 국민의 당에 이어 둘째 날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앞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전의 기자회견을 큰 무리 없이 마친 투쟁단원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단위의 사람들과 함께 삼삼오오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하나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우리들은 대오를 정비했다. 대오를 정비한 단원들은 일부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고 또 나머지 단원들은 사부작 사부작 2017년 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 천막을 준비해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기 시작

했다. 작전은 잘 먹혀들었고, 도로 쪽 대오를 진압하는데 신경이 쓸린 경찰들은 천막을 잘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광화문 광장에는 또 하나의 천막이 들어섰다.

천막을 본 경찰들은 화가 많이 났고, 우리의 짐들이 광화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로 막으며 우리를 탄압했다. 그러는 사이 천막 옆으로 투쟁문화제 무대가 만들어졌다. 문화제에서는 연영석 동지, 시와 동지, 박준 동지 등이 멋진 공연을 보여 주었다. 동지들의 공연은 특히 힘이 많이 들었을 우리의 둘째 날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기운이 다시 100% 충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다시 힘을 받은 우리들은 침낭을 들여오기 위해 무

던히도 노력했다. 한 명이 한 개씩 농성장에서 침낭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나는 전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냥 다른 짐을 나르듯 침낭을 들여오려 했으나 정보과 형사의 손에 침낭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당했다. 밤이 많이 늦어져서야 우리는 다시 잠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절대 올 것 같지 않았던 두 번째 밤을 맞이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은 와라(‘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의 줄임말) 특별 아침 방송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진행하며 투쟁캠프 해

단식을 가졌다. 정말 길고 긴 날들이었다. 누구는 고작 2박 3일가지고 그러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체험해 본다면, 그리고 계속되는 그 투쟁의 긴장감을 느껴 본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박 3일을 밖에서 지내며 꽃다지의 「내가 왜,」라는 노래가 많이 생각났다. 참 잘 만든 노래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좋은 싫든 어쨌든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2박 3일이었다. 그 힘들고도 달콤했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야학 학생들 및 동지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날 밤을 함께 했던 이들과 더불어 더 좋은 날을 거리에서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코디,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 가다!?

유지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코디로 불리며, 괴상한 짓을 술선수범해서 행하는 유쾌, 상쾌, 통쾌한 처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말로만 듣던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일정이 다가왔다. ‘재미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다’, ‘뒤풀이 시간을 조심해야해’, ‘활동가대회는 재미로 가는 게 아니야, 역량강화를 하는 거야’ 등의 말을 익히 들어왔고, 작년 활동가대회 사진 속 엄청난 인원을 본 나는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세영 팀장님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가다보니 금세 도착하게 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가분들의 모습이 보였다. 색깔별로 모둠이 정해졌는데, 처음 뵈는 분들이라 매우 어색하고 괜히 부끄럽고 그렇지만 좋았다. 몸 풀기 마음 열기 프로그램 시간이 끝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숙소에 짐을 풀고 반성폭력 교육을 듣게 되었다. 교육 후 숙



소로 돌아와 목욕 재개를 하며 팀장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무더위에 지쳐 에어컨을 틀고 잠을 청하기로 했다. 활동가대회 첫날이고 다른 센터 사람들과 함께 방을 쓰러니 어색할 것 같아 먼저 굿 나잇 인사를 전했다. 옆방 사람들은 소소하게 모여 치맥(치킨과 맥주는 사랑입니다)을 즐기고 계셨다. 함께 하고 싶었지만 난 아직 어색하니까, 낯선 잠자리에 적응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렇게 설레는 첫날밤이 지나가는 듯 했다.

“꺼이꺼이, 흐에엥, 히잉... 훌쩍훌쩍, 우에엑... 주르륵.....”(?) 새벽 1시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옆 침대를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구토를 하고 있는 박 팀장님. 방바닥은 이미 물바다였다. 나는 놀란 토끼눈으로 “세영 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라며 열린 불을 켰다. 비몽사몽한 정신에 흐느껴 울며, 구토를 계속하고 있는 그녀. 열린 휴지를 가져다주고 방바닥을 수습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영 쌤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또 이래 또. 히잉.” “왜 그래요, 머리가 계속 아프다니, 자주 이랬어요?” “가끔 그래. 집에 있을 때도 가끔 그럴 때면 방법이 없어. 속상해. 짜증나.”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다. 10분쯤 흘렀을까? 조금 진정이 되었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다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나도 잠자리에 누웠고 금방 잠이 다시 들었다.

새벽 3시 30분 쯤,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깬고,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자연스럽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수건으로 수습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아까보다 혈색이 안 좋

고 험썩한 모습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푹푹 흘리며 성을 낸다. “이유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짜증나. 머리 아픈 거 때문에 병원에도 갔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대. 흑흑흑.” 나는 말없이 토닥이다 “쌤, 계속 이러면 활동가대회고 뭐고 일단 병원으로 가요, 그게 낫겠어요”라고 말했다. “누우면 계속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앉아서 잘 수도 없고 미치겠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머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속은 좀 진정된 것 같으니 다시 잠을 자보겠다는 그녀의 말에 나도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다.

새벽 5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시 “후에에엑~ 주르륵... 흑흑” 소리가 들려왔다. 선잠을 자던 나는 꿈을 꾸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창가 쪽에서 쿨쿨 자고 있던 활동가 한 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팀장님의 등을 두들겨 주고 있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팀장님. (그분의 등 두드림이 상당히 파워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다시 쓱쓱쓱 정리를 하였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미치겠네, 미치겠네를 반복하는 그녀.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안 쓰럽고 답답했다.

새벽 5시 30분, 침대에 기대앉은 팀장님은 나에게 미안해하며 마저 잠을 청하라고 했다. “나는 괜찮아요. 쌤이 걱정이지. 에휴...” 불을 꺼도 밝은 방안에서 우리는 다시 나란히 누웠다. 7시 쯤 또다시 구토가 시작됐지만,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는 팀장님.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애타는 나. 사람들은

하나 둘 일어나 둘째 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씻고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했다. 서기현 소장님께서 연락해서 새벽 상황을 설명하였고, 9시쯤 소장님이 숙소로 올라오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면 집에라도 가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소장님의 말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팀장님. 결국 아버님이 호출되어 팀장님을 데리러 오셨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팀장님을 배웅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쌤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비몽사몽인 정신과 친근만근인 내 몸이 느껴졌다. 쓸쓸하고 외롭게 점심을 먹고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강당으로 갔다. 아직 프로그램 시작 전이라, 양치를 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숙소로 들어왔다. 팀장님에게 몸은 좀 괜찮은지 카톡을 보내고 1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난 잠깐, 아주 잠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저녁 식사시간이 되었다. -.-;

저녁 7시, 그녀가 돌아왔다. 마중을 나갔는데 혈색도 좋아졌고 머리도 아프지 않다고 한다. 대신에 약을 잔뜩 타왔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해맑게 웃으며 “입원한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데 집에 가도 뭐... 근데 지영쌤. 저녁식사 끝났어?” 팀장님이 배가 고프걸 보니 이제야 안심이었다. 소장님이 빵과 음료를 사주셨고, 그녀는 미소를 되찾고 살아났다. 덕분에 신나는 장기자랑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

다. 드디어 뒤풀이 시간, 쏘맥(소주+맥주의 비율은 3:7이 좋습니다)을 마시고 싶었으나, 눈으로 꿀꺽꿀꺽 마시고 접어두었다. 유레카! 제육볶음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종이컵 가득 제육볶음을 열심히 덜어 먹고 또 먹고, 방으로 돌아와 팀장님의 약을 챙겨드린 후 난 편안하고 깊게 잠이 들었다.

마지막 날, 2박 3일 동안의 활동가대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팀장님과 나는 몸 풀기 마음 열기 시간 이후의 사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유령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의 첫 활동가대회는 말로 듣던 활동가대회하고는 매우 달랐다. 재미있지도 않았고, 지역 활동가와 따뜻한 교류를 나누지도 못했고, 뒤풀이 시간을 조심해야하지도 않았으며, 역량강화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또 오고 싶은 활동가대회임은 틀림이 없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동지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라는 유대감을 주는 눈인사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 투쟁으로 마무리 한다. 투쟁!

훨훨 날아라, 꽃님 기금!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어느 날부터 탈시설 운동에 꽃혀서

15년 넘게 주구장창 탈시설만 이야기하며 다니고 있다.
발바닥행동 다음으로 노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2016년 8월 18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선심 언니의 탈시설 10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언니가 10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을 노들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에 '꽃님 기금'이란 이름으로 기부하는 행사였다. 언니는 노들에서 '꽃님'이라는 별칭을 사용했었고, 우리는 그 별칭을 따서 꽃님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변에서 언니를 자린고비라고 불렀던 이들도, 집회 좀 나오라고 타박했던 이들도, 10년이나 준비한 언니의 깜짝 이벤트에 놀라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감동했다. 언니는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년 동안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준비했다"고 했다. 다른 동료들이 거리와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칠 때 자신은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니, 돈이라도 모아서 기부하겠다고 생각했단다. "내가 시설에서 나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쓸모 있는 인간이다. 나는 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언니의 담담한 고백이 우리를 더욱 미안하고 부끄럽게 했다.

언니는 시설에서 나와야겠다고 결심이 서자 발바닥에 몰래 연락할 핸드폰이 필요했다. 그때 조카에게 연락해서 20만원을 보내 달라고 했고, 조카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내줬다. 그 조카가 멀리 광주에서 올라와 고모의 기부식을 축하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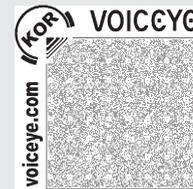


꽃님기금 기부식 중 토크 콘서트.
언니의 자립생활과 기부 과정까지의 에피소드가 쏟아져 나왔다.
왼쪽부터 정을, 유해정, 임소연, 김선심, 홍은진, 임영희.
처음 시설에서 만나 인터뷰할 때만 해도 시설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임소연, 노들과 발바닥에 서운했던 모든 뒷담화를 들었다는 유해정, 노들 생활의 에피소드와 꽃님기금의 의미까지 조목조목 짚는 시간이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집권 여당의 수많은 정치인들도 남 탓하며 자기 살 길 찾기에 골몰하는 세상에서, 언니 같은 이들의 자존심과 책임감은 더욱더 빛나 보인다. 언니는 자존감이 정말 센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감히 쓸모없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사실 발바닥의 어느 누구도 언니에게 '탈시설 1호'라는 책임감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언니는 스스로 발바닥의 탈시설 1호라며 자신이 잘 살아야 누구라도 탈시설을 지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단도리했다. "니들이 서울에서 전남의 시설까지 나를 찾아와 준 것처럼, 이 돈 갖고 전국의 시설 가는데 차비라도 써. 가서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 언니의 명령이었다.

언니가 자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실 시설에 있는 누군가가 자립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되었고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이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선뜻 바깥으로 손을 내밀기도 어렵고, 그 손을 잡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주는 기관도 많지 않다. 법과 정책과 예산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 1,200명의 홈리스와 장애인이 거주했던 대구 희망원이 인권 유린과 비리로 문제가 되자, 이를 운영해 왔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는 온갖 권모술수로 버티기를 해 오다가 결국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를 관리·감독했어야 했던, 사실상 이 사태의 공범인 대구시는 다른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129명이 사망한 이곳에서,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 이들의 시설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희망원 사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대구시. 또다시 1,200명의 꽃님이들을 시설에 가두어 두려는 대구시의 발상에 분통이 난다. 그런데 이런 발상은 시설 문제가 발생한 전북에서도, 경기에서도,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은 애당초 꽃님이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복



우리는 기부식을
'아름다운 역전'이라고 이름 붙였다.
언니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역전이었다.

지와 인권을 말하는 이들에게, 진정 인간의 존엄
을 되묻고 싶다.

어쨌든 세상은 그러할 지라도 언니의 뜻과 의
지로 '꽃님 기금'은 탄생했다. 이것을 마중물 삼
아 '탈시설-자립생활 기금'을 제대로 한번 키워
보자고 노들과 발바닥은 결의했다. 선심 언니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역전'은 여전히 시설에
살고 있는 다른 꽃님이들의 자유로운 삶으로 이
어려야 한다. 이 역전에 동참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시라. 전국의 수용시설을 훑힐 날아다닐
꽃님 기금을 함께 키우자!



꽃님기금 기부식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언니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자립을 지원했던
이들을 일일이 초대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나보다.

‘꽃님 기금’ 공식 후원 계좌: 국민 488401-01-249324[박경석(꽃님기금)]

※ 정기적으로 기금을 보태실 분들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꽃님기금으로 지정 기부
하시면 됩니다. (담당: 김정하 ☎ 010-3252-9463)

【형님 한 말씀】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명확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고 있습니다. 열지않아 겨울이 오겠지요. 이렇게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함없이 오건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
는 세상은 너무 너무 힘들고 답답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거의 없는 지금의 우리의 사회 현상들. 어찌 우리가 살
아 가는 사회가 마냥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은 더욱 힘들고, 답답함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나라의 정치는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은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이
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욱 이런 현상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 지는거같
아 더욱 더 힘들고, 답답함만이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광화문
농성장에는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를 4년이 넘도록 외치고 있지만
국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국가 권력을 향하여 우리들은 4년이
넘게 외쳐 왔고, 오늘도 내일도 외칠 겁니다.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를 하라고. 이 나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법들도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폐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일입
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꼭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힘
내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그리구 즐겁게 투쟁 합시다.
슬기보면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겁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하리라 우리들의 힘으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장애원도 인간답게 살고싶고 싶자.

【장판 핫이슈】

권리가 박탈된 시대, 선택은 사투(死鬪)뿐이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욕을 먹더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성격 안 좋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 하지도 않아도 돈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장애인입니다.

2016년 9월 9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다. 양영희, 노금호, 그리고 박대희, 전동철체를 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목에는 빨간색과 흰색 천이 둘러져 있었고, 그 뒤로 흰 장갑을 낀 또 다른 세 사람이 서 있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질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 주위는 조용했다.

가위질이 멈추고 이윽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의 머리 위로 전기 이발기가 지나가자 민머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곁에

서 있었던 한 활동가가 양영희 동지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 쓴 편지를 읽어나갔다. 300명이 넘는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조용히 눈물을 떨어뜨리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울거나, 그저 숨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양영희 동지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2006년 처음 활동보조제도화 투쟁을 시작할 무렵, 아빠는 폐암 선고를 받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지요.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난 길바닥에 있었지요. 시청 농성장에서 투쟁하면서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했어요. 남은 엄마, 남동생, 여동생에게도 부담 주기 싫었어요. 난 그때 자립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설에 가거

나 평생 엄마와 동생들에게 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 때문에 투쟁이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에게 살아생전 효도는 못 할망정 걱정거리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 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아빠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장애가 있는 딸자식 걱정으로 평생을 보낸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보조 투쟁은 절실했고, 나의 생존이자 아빠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활동보조 예산 때문에, 장애인 생존권 예산 때문에, 아니,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삭발을 또 해요. 내게 꿈이 있기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랬다. 꼭 10년 만에 다시 장애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삭발을 하고 온몸에 보호대를 하고 반나절을 넘게 한 강대교를 기어 만들어낸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공중분해 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시설에 처박혀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 누군가의 걱정과 근심거리로 전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일 발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주요 예산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삭감되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핵심인 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실제 이용자 수인 6만 3,322명에도 못 미치

는 63,000명을 내세웠다. 월평균 급여 수준도 월 109시간으로 동결해 버렸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9,000원으로 동결시켰는데, 이는 활동보조인들의 최저임금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걸 고려하면, 한 달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활동보조인을 회피하고픈 직업으로 만들고 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는 증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도 5% 삭감되었다.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센터의 수는 올해와 같은 62개소로 동결되었다. 노동지원 예산은 2016년 실제 이용자 수인 6만 3,322명에도 못 미치

해 주어야 할 장애인연금은 고작 200원 인상시켜 놓고 온갖 생색은 다 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한 반면, '탈시설-자립생활'에 역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금은 늘렸다는 사실이다. 거주시설에 대한 총예산이 올해 4,370억 원에서 4,551억 원으로 181억 원 증액시켰고, 지원 시설 수도 올해보다 16곳이 늘었다.

역행도 이런 역행이 없다. 역행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아니 억지로 빼앗고 시궁창에 지옥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권리가 박탈된 시대, 장애인들의 선택은 사투(死鬪)뿐이었다.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이제 시작입니다!

김필순

큰 행사들 치루고 나면 늘어나는
갈색 반 흰색 반 머리카락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올 여름 이 티셔츠를 입은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끔찍했던 무더위 속에서 각종 집회 현장
에 함께해준 고마운 이 옷은 제1회 종로장애인인
권영화제 홍보 티셔츠입니다. 사진이 예쁘지요?

예쁘게 찍어서 홍보하자며 카메라를 들이밀
때 저렇게 손까지 잡을 줄은 몰랐는데^^; 모델들
이 무슨 생각으로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여느 세련된 의류 팸플릿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예쁜 사진 덕분에 영
화제 티셔츠는 완판 근처까지 갔습니다. 두 모델
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티셔츠 구매에 앞장서 준
노들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6월, 마
로니에공원 옆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글
을 쓰는 지금도 이음센터인데요, 8시면 장애인극



단 '애인'의 공연이 이곳 건물 어딘가에 있을 예
정이예요. 그래서 유후 공간을 찾아내 이미 마감
을 살짝 넘겨버린 이 글을 촉박하게 쓰고 있습니
다. 이음센터는 종로구에 위치한 장애인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를 시작으로
노들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장소가 아닐까 슬쩍
자랑도 해봅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종로장애인
인권영화제는 혜화역 2번 출구 앞, 이음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잊지 말고 많이 찾아주세요.

올해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열렸
는데요, 이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또 다른 활동인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
영되는 영화를 (한 번만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지역사회에서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현실과
이에 저항하는 장애인의 투쟁을 기록하고 고발하

는 장애인인권영화제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상운
동 및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역의 단체들과 공
동 주최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종로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자는 사업 목적도 가지고 있
습니다. 올해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
지역지부인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서울지부, 그리고 종로장애인복지관 및
노들의 각 단위가 공동주최를 했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영화제 관람을 통해 조합원 인권교육
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
중한 인권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
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연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연초에 학교에서 잡아놓은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대답들만 수없이 듣고, 결국 사전에 참석하겠다는 학교를 한곳도 확정짓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제를 맞이했습니다.



개막식 사회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사회자(!) 정규 님이 맡았습니다. 제1회 영화제라는 살짝 무거운 마음을 잊게 만들어준 정규님과 개막식 PPT를 멋지게 만들어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현구 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를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로구청 문화관광과에서도 성황리 열리는 영화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보라 했기에, 내심 내년부터 종로구의 정식 문화행사로 자리 잡는 줄 알았으나 내년은 물 건너갔고 후년쯤을 기대해야겠어요. 종로구 행사가 되면 재미없는 외부인사들 소개가 줄을 잇는 영화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영화제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할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종로구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총 5편의 장애인인권영화가 상영되는 하루짜리 영화제였지만, 그래도

관객 수는 주최 측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오후가 되면서 줄어드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할 때 관람객이 되어준(동원되어준?) 노들활보교육기관 교육생님들 고맙습니다. 또 그들을 인도해 준 담당 강사인 신행 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정말 고마운 이들이 있어요. 수업도 빼고 단체로 관람을 온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영화감상 특활반 학생들! 수없이 돌렸던 전화가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마음에 가슴이 뜨근뜨근 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다소 낮은 영화를 보던 학생들, 분홍종이배에 대해 물어본 후돈이 없다며 구입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노들바람』이 나오면 학교로 분홍종이배를 함께 넣어 보내야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 학생들 반가웠어요. 그리고 관람 후 따뜻한 악수 건네주신 담당선생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단체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



【대학로야 같이 놀자】

변화를 보다

송무림

(사)노들 소속 활동가이며, 응급알림e 서비스담당.
편의시설개선 자조모임을 맡아 활동 중.
일도 건강도 잘 챙기면서 추운 겨울 잘 이겨내야겠다.
아 추워~

지난 활동들

- 2013년도: 인근 지하철역과 주 환승구간, 마로니에공원 조사, 편의시설모니터링전시회
- 2014년도: 국가인권위 진정활동, 마로니에공원 객석 및 장애인화장실 기자회견
- 2015년도: 공공시설을 비롯한 상점 조사, 민원접수 및 인권위진정, 편의시설모니터링전시회

지난 3년여 동안 자조모임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역, 마로니에공원, 공공시설, 상점, 그리고 민원 접수와 국가인권위 진정, 편의시설모니터링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그 동안의 조사 활동을 토대로 올해는 출입이 어려운 장소를 발굴하고, 우리의 힘으로 직접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편의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고, 장애

인들이 사회 활동 및 참여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작년에 모니터링 조사를 하여 민원 접수를 하였지만, 전체 10곳 중에 2곳만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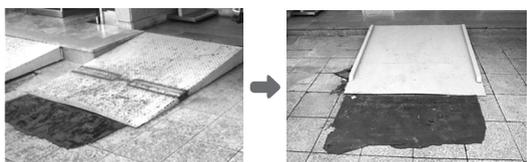
대학로에는 상점들이 많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들을 개선처로 삼을 수는 없지만, 출입구가 계단(턱)이 1~2개인 곳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였습니다.

2015년에 변화가 이루어진 곳

롯데리아(턱 제거)



신한은행(추락방지턱 제거)



입구에는 턱이 두 개 있어서 장애인들이 혼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이곳 또한 매니저에게 경사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날 KFC에 오셨던 교장 선생님 또한 들어가지 못하고, 매장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던 영은 씨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유리문을 통해 지켜보면서 말합니다.

6~7월에 걸친 개선처 발굴과 개선 요구 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안하고 부탁하고 법률적 위반 사항을 얘기하며 독촉도 해보았지만,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

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선을 요구한 대부분의 매장에 경사로를 놓기 위해선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개인 상점이 아닌 본사가 있는 곳은 설치를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장에서 아무리 설치 의사가 있어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설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에 노들센터에서 직접 본사와 싸움을 진행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하고 직접 연락도 하면서 꾸준히 접촉을 하였습니다. 경사로가 속전속결로 설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설치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초 텐바이텐에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고 첫 성과였습니다. 텐바이텐은 4번의 방문 후 변화가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건물주와 이야기 중'

2016년 5월말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출입이 어려운 장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맥도날드, KFC, 옷가게, 식당, 서점, 병원, 약국 등의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발굴 작업에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자를 포함한 권익옹호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개선처를 한 곳 이상을 발굴하고 담당하여 개선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굴 활동 후에는 대상지에 찾아가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 개선 활동의 시작은 맥도날드였습니다. 매장 전면에는 계단이 너무 많아서 뒷골목을 통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턱이 하나 있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매장 이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KFC를 방문하였습니다. KFC의

편의시설 개선활동으로 인한 변화

텐바이텐



농협



맥도날드



KFC



경희부부 한의원



고석환 손만두



이라고만 얘기하던 곳인데 갑작스런 설치에 살짝 놀랐고 또 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농협은 작년도 편의시설 모니터링 대상이었는데, 8월 말에 드디어 난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떨어질 위험성이 너무 높은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이 되기까지 다른 곳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치해주겠다고 했던 곳들도 미루거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협의 중이다’, ‘설치가 되도 얼마나 오겠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댔습니다.

11월 말 무렵, 오랜 기다림 끝에 맥도날드와 KFC에도 경사로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맥도날드에는 건물 뒤 출입구에 경사로가 놓이고, KFC에는 매장 앞으로 안전바와 함께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원재 근처에 있는 경희부부한의원에서 경사로를 설치해주셨습니다. 한의원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자, 바로 옆에 있는 손만두집에서도 나무턱 공사를 하면서 경사로를 놓아 주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총 6군데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반드시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권익옹호활동가를 아시나요?

김필순

하루를, 그리고 한주를 정리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활동을 만들어간다는 어려움과 가치를 알려준 시간

권익옹호활동가, 이름이 생소하시다구요? 올해 대부분의 투쟁 현장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분들이 참여해 맹활약을 하셨는데,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올해 투쟁을 많이 안하셨나 봅니다. 반성하며 이 인터뷰를 찬찬히 읽어주세요. ㅎㅎ

2017년 노들센터는 10여 년 전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할 때의 마음인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진지를 구축하고 법을 끌어오기 위해 싸우는 구성원들의 공간, 그 근육 같은 공간으로서의 자립생활센터”(홍은전, 『노란들판의 꿈』, 봄날의책, 2016)를 다시 꿈꾸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광화문농성장을 비롯하여 기자회견, 집회, 추모제 등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결합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 현장을 든든하게 함께 한 노들센터의 권익옹호활동가이자 노들야학의 학생인 이상우, 최영은, 하상윤, 허정과 함께 올해의 활동을 되새겨보고 평가해보았습니다. 참 저는 권익옹호활동가들과 매일 매일의 일정을 조정하고, 확인하고,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묻고, 싸우고 한 필순이에요. 1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활동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참조: 올해 노들센터 권익옹호활동가는 종로구 장애인일자리사업(주14시간, 월54시간/ 상우, 영은, 정)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중 활동가양성사업(주16시간, 월64시간/ 상윤)을 통해 활동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권익옹호활동가라는 이름이
맘에 드시나요?**

상우, 상윤, 영은 맘에 들어요.

정 맘에 안 들어요. 그냥 노들 활동가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필순 권익옹호활동가도 노들 활동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활동의 중심이 권익옹호, 데모 활동이기에 그렇게 붙여 보았어요. 그런데 자립생활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은 권익옹호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권익옹호활동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세상을 바꿔가는 활동입니다^^



**권익옹호활동가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상우 뭐 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박경석 교장 쌤으로부터 권익옹호활동가를 권유받았어요.

영은 교장 쌤이 제안하셨어요.

정 권익옹호활동가 안하면 평원재에서 나가라는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을 받았어요. --;;

상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코디가 정보를 줬어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기억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왜 기억에 나요?**

필순 우리가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한 달에 최소 10회, 최대 18회까지 활동을 했으니 월 평균 12.8회를 한 셈이고, 12월까지 생각하면 154회 정도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요. 일 년 365일이면 2.5 일 1회 활동한 것이지요. 우와~~입니다.

정 저는 결정을 좀 늦게 했지만, 광화문농성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할 때 많이 답답했는데, 영문 선전물이 있어 참 좋아요. 아마도 저의 제안이 먹힌 것 같아요.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필순 허정의 제안이었는지 누구의 제안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외국어 선전물이 있는 것은 광화문 농성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기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게,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앗! 말이 길다ㅋ).

영은 저는 백남기 농민 추모제가 기억나요. 뭐랄까?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쓰러지셨잖아요. 추모제에 참석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몰대포로 쓸 수 있는지 많이 분노스러웠어요. 이것도 세월호 사건처럼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이 될 것 같아요.

상윤 저는 장애인평생교육 토론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필순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참여한 활동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윤 웃음 (우리가 다 아는 그 웃음^^)

상우 저는 종로구청 점거투쟁이 생각나요. 그 이유는, 정말 이른 시간, 오전 8시에 모여서 한 활동이어서요. 아침 8시 활동이라니!!

활동하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생계급여 삭감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나타났잖아요. 그 때의 기분과 그에 따른 결정이 지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더라도) 하기로 한 일(권익옹호 활동가)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잘 했다고 생각해요.

상우 그만 둘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쩌다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사실 조금 힘듭니다.

정 그만 두려고도 했는데 활동보조인인 강호 형이 계속 설득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잘했다고 생각해요. 활동을 하기 전에는 TV-게임-야학-TV-게임-야학의 되돌이표 생활이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잘 한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필순 강호 쌤 정말 감사해요. 허정+1의 권익옹호 활동가 같으십니다.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일을 했더니 바로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는 것, 장애인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상황을 잘 견디고 같이 활동할 수 있어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빈곤 계층의 기본적 생활 욕구 해결을 위한 공적 부조입니다. 생계급여 삭감이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노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나요?

상우 상윤 영은 정 네.



중증장애인이 나에게 권익옹호활동의 의미는?

상윤 진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소득이 없잖아요. 권익옹호 활동은 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알리는 길이라 생각해요. 또 권익옹호 활동이 저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필순 그런데... 상윤 형은 광화문 농성장에 오면 왜 선전전을 안 해요? (다들 웃음, 상윤도 웃음)

상윤 저는 언어장애가 있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필순 앗, 언어장애 문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렵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서 선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상윤 형은 탈시설 투쟁의 시작인 석암투쟁 8인 중 한 명이기도 하잖아요. 투쟁의 선배로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시설에서 나올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 명함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권익옹호할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어요. 명함을 나눠주면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필순 아, 그렇군요. 명함을 나눠주면서 느낀 존재감과 소속감도 소중한고,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을 허정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이것을 책이나 입으로가 아닌 명함을 나눠주는 활동으로 통해, 몸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중한 활동이 아닌가요?

영은 재가장애인도 집구석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권익옹호활동가 말고 다른 노동,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상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컴퓨터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또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AAC를 활용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정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많이 없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노동,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포토샵으로 만화를 만들고 싶고 일본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필순 일본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는 미래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여행을 준비해서 가보면 좋겠어요.

영은 AAC를 활용해 탈시설 멘토로 활동하고 싶어요.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한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상우 참 좋았지만 힘들었어요.

상윤 나가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생각과 주장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 나는 우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재미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겹기도 했어요.

영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활동하니까 좀 힘들었지만 즐거운 활동이었어요.

내년에도 활동 하실 건가요? ㅎㅎ

상우 고민 중이에요.

상윤 내년에도 활동할 거예요.

영은 고민 중입니다.

정 하긴 할 건데, 이사 등의 환경이 바뀌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순 약! 다들 고민 중인 것을 보니, 올해 활동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내년에는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들 잘 고민해 보아요. AAC 강사가 요즘 우리들에게 핫한 직업인 것 같은데, 이 강사는 야학의 장애인권교육 강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강사가 프리랜서라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내년에도 같이 활동합시다!! ㅎㅎ

며칠 전 권익옹호활동가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 보는 이들과 이것저것 묻고 메모하는 과정이 어색했는데 감동적인 순간이 있어 옮기고 싶습니다.

- 직업 활동의 경험은?
- 없어요. 앗, 권익옹호활동가를 하고 있고 있어요.
- 앗, 권익옹호활동가, 이것이 당신의 첫 직업이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상담 시 ‘직업’란에 꼭 무엇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공란이 아닌 무엇이라도 적어보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겠구나, 직업으로 ‘권익옹호활동가’라고 적는 순간, 이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이자 소득 활동으로 권익옹호활동가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쿵쿵거림으로, 저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노들센터 권익옹호활동가라 말하는 순간에 활동을 같이 하는 이들도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자! 권익옹호활동가들이여!! 힘내자! 장애인운동이여!!

직업으로
‘권익옹호활동가’라고
적는 순간,
이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이자 소득활동으로
권익옹호활동가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수연 언니의 자립체험기

(그리고 박임당의 활동보조 분투기)

≡≡≡ 박임당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노들의 1년 살이를 알 듯 말 듯 한 사람.



... 생존, 그것이 단연코 문제로다 ...

지난 2016년 6월 20일부터 4박 5일 간 노들야학 정수연 학생의 자립생활 체험이 진행되었다. 사실 수연 언니의 자립 체험을 계획하기 전에는 나에게도 많은 꿈이 있었다. 수연언니와도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자립 사례들을 듣고 싶기도 했다. 정말 찰진 시간을 짜보리라 지윤(수연 언니의 또 다른 활보이자 노들야학의 교사)과 나는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자립 체험 날은 다가오고 있었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윤과 나는 부랴부랴 회의를 꾸리고, 지윤이가 어머니를 만나 언니가 어떻게 4박 5일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선에서 아주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주거를 함께 하며 활동보조를 해본 적은 없는 비숙련 활동보조였고, 또 따로 널만한 시간의 부재로 인해 수연 언니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언니가 4월부터 기다려온 자립 체험을 미룰 수는 없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체험이라는 건 영원히 시작될 수 없는 것 일거야'라고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자위했다.

언니는 언니대로 합법적으로 집을 나온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뽕뽕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았다. ㅎㅎ (수연 언니는 아니라고 부정함.) 우선 야학에서 낮 수업과 저녁 수업 듣는 일정은 고정시켜놓고, 그 외의 밤 활동에 대해 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씻는 것이 가장 큰일이었다. 나와 지윤은 언니가 샤워를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불안해 하다가 샤워를 마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가녀린 몸집의 언니였지만, 욕실이 방과 떨어져 씻을 때 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학의 여성 상근자들이 돌아가며 방문해 함께 해주었다. 이에 대해 언니의 의사를 확인해보았는데, 수연 언니는 진짜 쿨했다. '볼 테면 보라지~' 자유의 기운을 만끽해서였는지(나중에 물어보니 안 부끄럽고 좋았다고 함), 어쨌든 그런 점이 멋있었다.

감동적인 몇 장면도 있었다. 수연 언니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상연이 형은 체험 첫날 언니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금세 눈물이 그렇그렁해졌다. 그러고는 나중에 따로 언니를 불러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살라며 애뜻한 맘을 전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통닭까지 사들려 보냈다.

어머니는 언니가 가족 아닌 누군가와 외출할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화기에 손이 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머니는 체험 첫날 전화를 꼭꼭 참으시고는 다음날 야학에 멀쩡하게 나온 언니를 보고 티는 안냈지만 무척이나 안도했다고 전했다(비마이너 최한별 기자의 기사 참조). 아버님은 마침 신경 계통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언니를 일주일이나 못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상 통화를 통해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폭풍 눈물을 흘리셨다. 지켜보는 우리도 눈물바다. 그래도 씩씩한 정수연, 진짜 멋있었다.

... 언니만 살지 말고, 나도 같이 살자... ..

그러나 어찌 좋았던 것만 있으랴. 이 지면을 빌어 이용자 정수연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겠다. 음하하. 우선 스케줄 조정 건. 앞에서 말했듯 언니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샤워를 아침에 할 것인지 저녁에 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정해서 상근자들과 스케줄을 다 맞추어 봤는데, 돌연 술을 자시겠다고 한다. 아, 이럴 수가. 다시 연락을 돌려서 시간 약속을 잡거나 취소하거나, 언니와 협상을 한다. 아, 그 다음날도 언니는 술 약속이 잡혔다. 또 상근자들을 만나서 시간을 조정한다. 나는 미숙한 활동보조인, 하루 종일 바짝 긴장하고 있어서 너무 피곤하다. 술자리에 있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활동보조인. 술자리에 간다. 아 피곤해. 왜 계획을 자꾸만 바꾸는 것인가 나의 이용자여.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다. 나에게서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데아가 있었다. '활보는 전지전능해야 한다!' 나는 정수연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나는 정수연과 한 번도 갈등을 겪지 않을 거야. 나는 신체 활동에 능하니까 수연을 잘 보필할 수 있어. 나는 정수연의 인권을 존중할거야.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동물이지만 정신의 동물이기도. 저런 생각을 갖고 활동보조를 하다 보니 내 인권은, 내 멘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떤 활동보조인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평상시에도 자주 생각한다. 활동보조인 혹은 조력자로서 나는 얼마만큼의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자립에 힘이 되는가? 오히려 나의 능숙함이 그 사람의 자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고민들이 증폭되는 기간이었다.

... 정수연의 그 다음은? ...

준비해보자. 아니 준비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질문들은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립을 준비하는 일은 적절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여러 사람과의 소통 과정과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립인으로서의 정수

연, 그리고 활동보조인으로서의 박임당의 정체성과 성장을 찾아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토대이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와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수급권 혹은 노동의 문제, 이 모든 지점에 싸움터가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아찔하다. (부디 다음번엔 정수연 자립기로 만나 뵈 수 있기를...!)

정수연 자립체험 본인 막간 인터뷰

- 임당** 술 매일 마셔보니 어때?
- 수연** 힘들다.
- 임당** 치킨도 매일 먹었잖아, 어땠어?
- 수연** 좋았다.
- 임당** 10분 만에 고가의 옷을 획 골라서 샀잖아, 좋았어?
- 수연** 응!
- 임당** 근데, 스님 옷 같다고 엄청 놀림 받았잖아.ㅋㅋ
- 수연** ㅋㅋ
- 임당** 언니가 하루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해 보는 건 어땠어? 그리고 초반에 정했다가 중간 중간 계속 바꾸기도 했었잖아.
- 수연** 좋아.
- 임당** 근데 난 엄청 피곤했다. 언니가 일정 바꾸면 사람들 연락 돌려서 다 조율하고... 근데 사람 마음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 이리기로 했다가 저러기도 하고. 그건 참 당연한건데...
- 임당** 언니가 야한 영화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아가씨」 봤잖아. (여러분, 제가 썼습니다. 물론 할인은 정수연 찬스.)
- 수연** 너무 안 야했다.
- 임당** 언니가 나 순이 여사(수연 언니 어머니)보다 밥 잘한다고 그랬지?
- 수연** 응!
- 임당** 어머니가 그 뒤로 자꾸 나한테 급식 메뉴 상담하자 그런다...
- 임당** 평원재 사람들이랑 몇 번 어울렸잖아. 어때? 같이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 수연** 응! 좋아.
- 임당** 활동보조인이랑 같이 사는 건 어땠어? 앞으로 자립하게 되면 가족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랑 사는 거잖아?
- 수연** 살 수 있어.



【뽀글뽀글 할보상답소】

관계성으로 비추어 본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 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자연을 좋아하고, 싱그런 자연의 빛깔을 쏙 빼닮은
초록병 이슬도 좋아하는 탓에 느릿느릿 운동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며

장애여성공감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에 공감하면서도 제도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주변인들의 일상에 주목하며, 왜 이런 이야기들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지 질문해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적 특성 및 노동 특성은 현장의 갈등에 비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쉽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욕구와 권리가 충돌하며 불평등한 계약 관계에 놓인 모습만이 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연구와 인권의제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 전수조사 설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의 결과를 보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사이의 간극은 한편으론 넓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동반자

관계로서 비슷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확보되기 어려우며,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활동보조 과정 중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개인적 관계로만 바라볼 경우 실제 활동보조제도의 취약함이나 보완점 등을 살피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도화 10년을 맞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 운동을 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의 ‘일상을 보조’하는 업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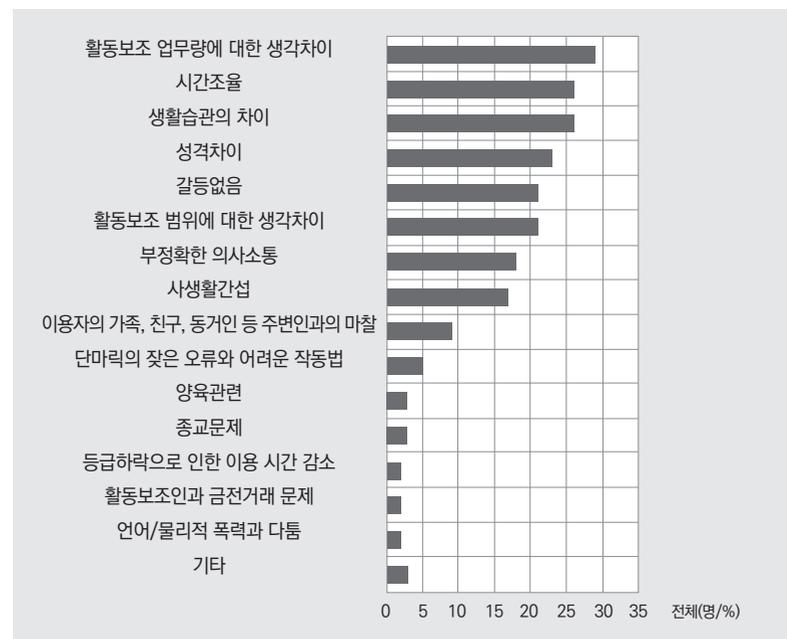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제1장 1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활동보조가 아주 사적인 부분인 신변보조부터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보조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이동보조, 업무보조 등을 실제로 지원하는 업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자는 장애등급 1~3급에 해당되는 만 6세~65세의 장애인들이다.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개별 환경 및 사회적 위치에 따라 보조하는 내용과 근무하는 장소나 상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업무 내용의 모호함과 광범위함으로 인해 갈등의 요지가 많지만 그 원인을 규정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는 직업군이 얼마나 될까? 습관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정해진 틀, 옳고 그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입장에 따라 갈등을 빚는 원인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해결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다름 자체가 활동보조 현장의 복잡성을 드러내 주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용자가 생각하는 활동보조인과의 주요 갈등 원인 |



■ 노동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

‘몸’을 보조하거나 보조받는 관계는 존중감과 는 별개로 물리적·정서적으로 밀접한 상태에 놓여진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이 서로 경험하게 되는 ‘몸’의 보조는 그저 공적 서비스 체계 안에서 아무런 정서적 교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몸’에 대한 보조를 주고받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그것을 편하게 혹은 덜 불편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사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보이기도 하며, 실제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권력이나 주도권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때 ‘몸’에 대한 보조를 받는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몸’에 대한 보조를 받

아야 하는 이용자의 경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연관이 되어 관계의 역동성에 힘을 더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생활이 없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는 기본적인 진실, 즉 우리 몸 중 어느 한 구석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경우만 빼고) 사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소리 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런 점이 사생활이 있는 몸을 가진 당신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차이이다.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계속 의미심장한 차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생리적 욕구에 대해 너무도 수치스러워하며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활동보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김은정 외 옮김, 그린비, 2013, 276쪽.)

■ 제도로 인해 구성되는 현장

① 서로 눈치 보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조건들

서비스 이용자이지만 ‘몸’에 대한 보조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용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어렵고 불편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접한 상태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낮은 위치에 놓여 있을 경우, 활동보조인 역시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같이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이로움을 제공했을 때 성취감과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 이용자 또한 활동보조인의 가정사나 개인적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활동보조인에게 정서적 혹은 그 이상의 지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활동보조를 주고받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이자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관계의 특성과 넓은 스펙트럼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놓여있는 취약한 조건은 교통비, 식사비, 개인 공간, 휴식 시간, 업무 보조 등의 일상적 문제에서 그대로 표면화된다.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나 식사비는 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그 원칙이 얼마나 유효한가. 눈치를 보다가 결국 관계 유지를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인정조사로 받은 시간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활동보조인은 휴식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 또한 당사자들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치부된다.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한데, 법을 준수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듯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살하지만 필요한 요소들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 눈치를 보며 어느 한쪽이 알아서 감내해줘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복잡 미묘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활동보조의 현상이 '사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직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공적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공백들로 인해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공적 관계로 드러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함이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사적인 관계로 이야기 할 경우 일상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자기역량강화 교육 체계의 부재

보건복지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활동보조인 양성과정은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내실 있는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쪽 집단 모두 장애인활동보조가 전문적인 기술 외에도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 이수하는 40시간 기본교육만으로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 이용자는 본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자기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적 교육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과 장애인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등 주변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시스템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③ 활동보조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침해사례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지닌 이용자들의 입원 계속 기간 제한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그리고 메르스 사태 시 활동보조인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는 이용자에게 자가 격리라는 무책임한 방침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의 한 예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할보수가 책정으로, 중개기관을 위법적 상황에 처하게 하고 동시에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열악함 속에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사는 정부기관의 심각한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제도의 빈틈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예방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의 소통 채널이 불분명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코디네이터: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을 운동과 연결하는 통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코디네이터는 누구보다 장애인의 삶을 가깝게 만난다. 이용자와 활

동보조인을 위한 상담, 연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접촉면이 가장 넓기도 하다. 또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 속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접하게 되지만, 코디네이터들이 민감성을 갖고 활동보조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권 의제들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업무구조라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가 제도된 후 정기 평가와 과도한 부정수급 관리 체계 도입 등은 코디네이터의 업무의 기능화 및 획일화를 가속시켜왔다. 코디네이터는 정기 평가와 수시로 행해지는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 주어진 행정 및 사무 업무 외에 활동보조 현장에 관심을 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수익률의 감소와 수익에 비해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가 중개기관을 반납하는 사례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현장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제도화 투쟁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화 이후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을 제도가 구획하거나 통제하는 것, 그것을 지원하는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기관의 수익률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존재해야 하고 장애인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활동보조라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만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기능화된 인력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자립생활운동의 활동가로 볼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네트워크에서도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정보교환을 넘어, 제도가 중개기관을 어떻게 길들이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나가며

이 글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기관과 코디네이터, 정부가 이미 인지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으며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제기 하였다. 명문화된 법에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을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일상이 이어져 삶을 이루기 때문에 일상의 문제는 오히려 처절하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치부해버린 것들을 논의의 중심부로 소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상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며, 제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왔지만, 다양한 생존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와, 또 자립생활운동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조금은 다른 불안을 위하여

정창조

노들야학 고장선생님 활동보조로 돈을 번다.
철학을 공부하고 있긴 한데 잘 하지는 못한다.
K씨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친구들과 서로 비방하기를 즐긴다.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며 사는 게 꿈인데 그런 날은 평생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발붙이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몫이라도
제대로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철학 공부가 재미있다고 대학에 설렁설렁 눌러 앉아 있다 보니,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나름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온 것도 같지만, 뭔가 어른스러움을 내비쳐야만 할 것 같은 나이인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내세울 만한 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기껏해야 쓸데없이 길어진 가방끈 정도가 지금의 내게 남겨진 거의 유일한 자산일 터인데, 그마저도 타인들의 나에게 대한 시선을 심각할 정도로 교란시키는 실속 없는 장식품 따위로 전략한지 오래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한심한 녀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 간 게으르게나마 익혀온 유일한 기술로 겨우 얻게 된 직업은 최저생계조차 보장되지 않는 대학 시간 강사 자리 뿐. 그렇잖아도 머리로

나쁘게 생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니, 공부를 지속하겠다는 나의 느슨한 열망은 늘 회의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와중에 어느 술자리에서 노들야학 교사 유미님께 교장 선생님의 활동보조를 권유받았다. 겨우 얻은 시간 강사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나름의 연구 시간도 보장되어야 하는 터라 매일 노동을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 직업이 나름 매력적으로 여겨졌다. 물론 몇몇 투쟁들에서 마주한 ‘불온한’ 미래 이용자의 모습 덕분에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 이용자의 불온함은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이 날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장애인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선입견이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만한 대답들, 설명들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한 나의 게으름과 무능함이었다.

내가 활동보조 ‘노동’을 시작했다고 하자, 적지 않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무료 봉사 썸으로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그 봉사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속단하면서, ‘창조가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를 가엽게 여기면서 꽤 좋은 조건의 직장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물론 ‘박경석’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는데, 그들은 대체로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행되지 마라, 돈 벌러 갔다가 벌금 맞겠구먼,

적자 노동 되는 거 아니여? 꺾꺾꺾).

노들야학의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괄호 안에 넣어놓은 반응들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나는 이러한 반응들에 딱히 어떠한 악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저런 말을 내놓는 이들이 딱히 악인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저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솔직히 감사함마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선의를 내비칠 때조차도 그것은 이 사회구조의 억압적 성격을 질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법이다. 이는 특히 자신의 삶과 전적으로 유리된 것으로 가정된, 자신과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조건이나 특성조차

‘불안을 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한 형태의
불안 속에 모두를 밀어 넣고선
이를 통하여 다른 불안들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하기 힘든 타자들에 대한 태도들에서 분명히 나타나곤 한다. 그렇게 ‘철저히 타자화된 어떤 타자’, 직설적으로 말해보자면 대개는 사회적 소수자인 이 타자는 다수자들에게서 진정한 만남의 기회, 심지어는 ‘서로가 공동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의 영역에서조차 허용 받지 못한다.

이는 오늘날의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유사한 종류’의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안한 노동 조건, 불안한 거주 조건, 불안한 장사 조건, 불안한 노후 조건, 끊임없는 경쟁과 낙오의 연속들, 오늘의 안정된 일상이 내일 당장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나날들 등등...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만, 내 주변 상당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은 이 시대의 이러한 ‘일반적’ 불안들조차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이들로 여겨지고 있었다. 불안이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는 혹은 실제로 떠맡고 있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일진대, 장애인들은 애초부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상상하는 장애인의 삶이란 그저 ‘내일 이, 한 달 후가, 일 년 후가,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의 일상’이 이미 결정된 삶이다. 그것도 장애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말이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날짜에 외출을 하고, 오늘도 내일도 1년 후도 그렇게 주욱.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시설 혹은 좁은 방안을 넘어선 세계에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도 깊은 불안들이, 혹은 그러한 불안들을 맞서고 견뎌낼 수 있는 어떠한 단호한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까?

물론 나는 혹자들이 ‘불안을 먹고 사는 사회’라 설명하곤 하는 오늘날의 체제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불안이라는 것이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의 사회가 문제인 것은 단순히 이 사회가 구성원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한 형태의 불안 속에 모두를 밀어 넣고선 이를 통하여 다른 불안들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안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진대, 한 종류의 불안이 너무 강력하다면, 혹은 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정 불안이 다른 불안들의 마주침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면, 다른 불안들은 그 인

간의 삶 속에서 그 가능성 자체가 허용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때로는 ‘한 불안’이 다른 ‘불안들’을 억압한다. 내일 당장의 생존과 경쟁에서 낙오할 것 같다는 불안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과 ‘진정 좋은 삶,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과 ‘사회의 변혁과 관련된 물음’이 던져주는 무거운 불안들에 빠져들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란 말인가?—그러나 불가능 하지는 않다.

그런데 상당수 비장애인들의 상상 속에서 장애인들 ‘일반’의 불안은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 ‘일반’의 불안보다도 훨씬 더 작은 범위로 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집 밖으로조차, 시설 밖으로조차 나설 수 없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상상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들 역시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감히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그들 역시 분명 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피해자들

일 터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불안을 누리는 것만큼은 그들에게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작 그 정도의 불안, 즉 비장애인들에겐 일상 그 자체인 불안들도 허용되지 않는데, 장애인이 니체를 읽고 사회에 저항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모습인가? 특정 불안에만 과하게 시달리고 있는 터라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어디 감히 장애인이 그런 사치를 누린단 말인가.

활동보조 노동을 시작할 때 쯤, 노들야학 홍은전 선생님의 「강가의 사람들」(『한겨레』, 2016. 9. 12.)이라는 칼럼을 보았다. 거기에는 활동보조인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을 열어주는 것’, ‘그들을 자기 인생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일상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주체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안을 마주하고 그것과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떠안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 국지적인 한 형태의 불안을 먹고사는 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



서 더 다양하고 더 깊은 불안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롭지만 더 고통스런 세계'로의 뛰어듦.

나의 이용자는 '행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몇 년 전 『지금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는 제목의 책을 쓰시더니, 최근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톡 하면 '요새 행복하시죠?'라 묻곤 한다. 그러나 사실 그는 언제나 불안해한다. 하긴 머리에 협상, 점거, 장애해방, 투쟁, 후원(금 받아내기), 심지어 혁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가, 일상적 담화에서 끊임없이 개그 거리를 생산해 내고자 욕망하고, 얼마 전 산 최신형 노트북을 모든 자리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일 게다. 그러면 그가 입에 달고 사는 '자신은 행복하다'는 선언은 거짓말인 걸까? 누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혹시 그는 자신이 그 불안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닐까? 나의 이용자는 자신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매순간마다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내 이용자가 더욱 더 자신이 매진하고 있는 종류의 불안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하고 싶다. 즉 언제나 그가 불안해하길, 심지어 지금보다 더 불안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두 달 여 간의 시간은 활동보조라는 나의 노동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도록 해주었다. 즉 나의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불안을 그 자신이 마음껏 맞부딪힐 수 있도록 다른 국지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안들—특히 비장애인들은 일상 속에서 도무지 겪을 수도 없고, 그러기에 이해하기도 힘든 특정 불안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말이다.

유난히 이동이 잦은 이용자가 자신의 '과도한' 불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생각지도 않는 불편함들을 최대한 덜 겪게 하기 위해, 나는 올 겨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운전 연습을 해볼까 한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가 되면 "나는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동정심 넘치는 착한 '봉사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이거적인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무능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이의 노동권도 소중하다!'는 되도 않는 근거로 변명거리를 늘어놓아야겠다.

그는 자신이
그 불안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닐까?
나의 이용자는
자신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매순간마다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병권의 비마이너】

트럼프와 대의제, 지식인에 대한 단상

고병권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밥 먹고 공부해왔으며, 작년 여름부터 무소속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에서 철학교사로 지내왔고 최근에 잠시 휴직한 상태.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자기 충전 중!



1 지난 미국 대선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뉴욕 타임즈』 같은 유력 신문도 개표 직전까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수치라고 불렀다. 그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발언을 예사로 했고, 막판에는 음담패설을 담은 녹음파일까지 공개됐다.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사설을 통해 그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지지 철회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도 그는 당선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럴 때는 결과로부터 되짚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는 당선되었다. 여기서 시작해보자. 우리는 왜 놀랐는가.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이 당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놀람은 경탄이 아니라 경악이다. 그는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식의 함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즉 우리는 그를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당선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려 했던 것은 아닐까.

따지고 보면 그와 클린턴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았다. 끔찍한 막말과 추문이 터진 후에도 생각보다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일시적 충격을 받았을 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상황이 변한 게 있다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조금 부담스러워졌을 뿐이다. 막말과 추문은 실제 지지율이 아니라 표명된 지지율을 조금 낮추었던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화이트 푸어 앵그리’, 즉 빈곤에 분노한 백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로이터(Reuters)와 입소스(Ipsos)가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5%는 “부자와 권력자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투표했다고 한다. 또

72%는 “미국 경제가 부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다”고 했다. 68%는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은 같은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했고, 76%는 “주류 언론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돈 버는 데 더 신경을 쓴다”고 믿었으며, 57%는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건지를 점점 더 알 수 없다”고 했고, 54%는 “미국에서 나 같은 사람의 삶이 개선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유권자의 70%가 이런 생각으로 투표에 임했다면 누구에게 유리했을까.

한편으로는 농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 이전 왕조를 지지하던 금융귀족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원한을 품었고 소상공업자와 농민들은 분노했으며 금융귀족들은 경멸했다. 바로 그때 보나파르트라는 추억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 조사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을 떠오르게 한다. 1845~48년 프랑스의 공황과 혁명, 선거 등은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월가점거, 2016년 대선 등과 닮은 느낌을 준다. 클린턴의 민주당은 겉으로는 월가 점거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운동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월가 점거운동에 친화적인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 게다가 클린턴 자신은 2014년 월가의 금융귀족들 앞에서,

평소 유세와는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다. 그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월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했고, 자신과 남편이 누리는 부유한 생활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한 투자은행 강연에서 1회 강연료로 22만불,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미국의 유권자 상당수가 “부자와 권력자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경제가 부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다”고 했을 때(참고로 ‘조작되었다’(rigged)는 말은 트럼프가 대선 유세 내내 했던 말이기도 하다), 또 “주류 언론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돈 버는 데 더 신경을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린턴과 주류 언론들을 자신의 대변자로 생각했는지, 힘을 빼앗아 와야 할 적으로 생각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2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1848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보나파르트’를 떠올렸다. 칼 맑스의 표현을 빌자면, 그의 당선은 “문명인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판독하기 어려운 상형문자”였다.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그는 자기 이름에 들어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말에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할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얼치기 광대였다.

사실 새로 권력을 잡은 정통 부르주아들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부르주아들은 1848년 2월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군주제를 타도했고, 이어 6월에는 노동자 봉기를 진압함으로써

순수한 부르주아 공화제를 수립하려 했다. 5월에 제헌의회를 갖추었으니 12월에 대통령만 뽑으면 꿈이 실현되고 상황이 종료될 판이었다. 물론 12월의 대통령 선거도 낙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상하기도 힘든 결과가 나와 버렸다. 보나파르트라는 얼치기 광대가 공화파 부르주아 후보보다 여섯 배나 많은 표를 얻은 것이다.

집권 부르주아들은 파리 시민만 생각했지, 전체 인구의 2/3에 이르는 농민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은 군대와 언론을 잡았고 의사당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전체 민중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제압한 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3 이는 소위 ‘화이트 푸어 앵그리’가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왜 그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따지고 보면 트럼프도 수퍼 갑부가 아닌가. 부자와 권력자로부터 나라를 되찾는다면서 왜 대중들은 또 다른 부자를 지지하는가.

19세기 루이 보나파르트에 대한 칼 맑스의 분

석을 원용해보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노하지만 조직되지 못한 대중들,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동일한 생활조건 아래 모여 있기만 한 사람들. 그저 “한 자루 분량의 감자를 모으면 감자 한 자루가 되는 것처럼” 모여 있을 뿐 “어떤 정치조직도, 계급도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

적 이해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주장할 능력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다. 그들은 대표되어야 한다. 그들의 대표자는 동시에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로서, 그들을 다른 계급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들 위에서 비와 햇빛을 내려주는 무제한적 통치 권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분할지 농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집행 권력이 사회를 자신에게 예속시키는 데서 그 최고의 표현을 찾는다.”

맑스의 말을 다시 풀면 이렇다. 자신을 조직하지 못한 빈곤한 대중, 그래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는 대중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 누군가를 찾는다.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적과 싸워줄 누군가 말이다.

그런 지도자는 막강한 집행 권력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대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농민들은 보나파르트에게서 자신의 대표를 보았다. 나폴레옹 1세의 추역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프랑스의 부활’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 마찬가지로 2016년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은 ‘위대한 미국 부활’을 외치며 레이건주의의 향수를 자극하는 트럼프에서 똑같은 것을 본 게 아닐까. 가난한 백인들의 질문은 후보들 중 누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가가 아니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대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적보다 더 강해야 한다. 트럼프라는 열치기 광대가 이때 나타났다.

4 대중 스스로 자신의 견해와 운동을 표현할 조직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은 적들을 끝장 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그들은 적을 타도하고 적으로부터 권력과 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들을 지도자에게 완전히 의탁한다. 스스로 예속을 원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다. ① 대중들, 무엇보다 대의조직 바깥으로 밀려난 대중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② 그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의탁할 대표를 선택

한다. 전자를 강하게 인정할수록 우리는 이룰때면 가야트리 스피박 같은 사람이 말하는 비평가 내지 지식인의 책무 같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스피박은 대중의 자율적 역량을 무한히 긍정하면서 정작 자신은 투명한 존재인 듯 빠져나가는 지식인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방기하는 지식인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평가의 한 가지 책임은 글을 읽고 쓰되, 지식인 주체에게 부여된 제도적 특권의 개인적 거부가 불가능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역시 지식인의 무색무취함을 믿지 않으며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훈계하길 좋아하는 그런 ‘선생질’하는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금 말한 ‘지식인의 책무’에서는,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 사이에서 계몽하는 전위 세력의 사명을 정의하고자 했던 레닌주의의 냄새가 묻어난다. 지식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기꺼이 떠맡는 지식적 품모는 생각보다 엘리트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중들의 현실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신음 섞인 목소리와 뒤틀어 만들어낸 몸짓을 표현 영역에서 미리 배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식인은 뒤로 물러나 그런 대중의 목소리가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식인, 내가 더 좋아하는 말로 하자면 연구자 대중은 대중의 일부로서 제 목소리를 내야하며, 또한 다른 대중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노들야학을 찾았을 때 절망했던 것은 또렷하게 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현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력함이었다.

앞서 맑스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그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다. 그들은 대표되어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사이’를 주목하면 자연

스레 지식인의 책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물론 소중한 물음이다. 하지만 나는 두 문장의 ‘사이’가 아니라 두 문장 ‘이전’을 주목한다. 맑스가 두 문장을 말하기 직전에 했던 말, 두 문장이 생겨나는 조건이 되는 말 말이다. 여기서 내가 떠올리는 물음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경우에 대중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맑스는 “어떤 공통성, 어떤 결합,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대중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고 했다. 그러니 권력과 부, 여론에서 밀려나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는 대중의 무력함이 있기 이전에, 서로 연대하고 또 조직을 이룰 수 없는 대중의 무력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함은 나 같은 연구자 대중이 장애 대중을 만날 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력함과도 관련이 있다.

내게는 지금도 노들야학의 홈페이지 어느 한쪽에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 여성이 했다는 말이 소중한 화두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지난 주 한국의 급박한 정세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이나 한가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다. 삼촌에 대한 향수에 기대면서 자기 이름의 신비한 기운을 믿었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만 큼이나, 아버지에게 대한 향수에 기대면서 우주의 신비한 기운을 믿었던 한국의 박근혜. 삼일 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백만 명의 시위가 있었다. 이제는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난 번 잡아놓은 열개대로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의 권좌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가운데 의회는 우유부단하고 대중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터라, 상황이 어찌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팟스는 보나파르트의 어깨

위에 황제 외투가 걸쳐지는 순간 방돔 광장에 세워진 나폴레옹 동상이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폴레옹의 신화까지 깨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박근혜의 어깨에 걸쳐진 최순실의 외투가 문제되면서, 그 추종자들이 내년 탄생 100년을 맞아 광화문에 세우려했던 박정희의 동상 건립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이렇게 싸웁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합니다.
탄산음료와 초콜릿, 운동과 키스, 담배와 데모를 좋아합니다.
술과 권위 그리고 자기소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UN에서 정했다. 1993년, 10월 17일은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를 없애겠다는 대망의 포부아래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후 2000년 UN 총회에서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 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목표를 결의, '화이트 밴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화이트 밴드를 찬 시민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앉은 후 일제히 일어나는 퍼포먼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일어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한국에서는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의 한국위원회와 몇몇 대규모 사회복지재단 및 단체들에서 기부금 모금 행사나 강연회 등을 진행한다. 매일 하던 사업을 빈곤퇴치의 날이란 이름을 빌어 더 크게 홍보하는 정도인데, '스스로 일어서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굉장히 동정적·시혜적으로 보인다. 모금을 요청하는 온오프라인의 홍보물이나 부스에 놓인 판넬과 리플렛 등에는 가난한 아이, 노인, 흑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어떻게 빈곤에 처하게 됐을까, 물음표는 불필요하다. 그들이 빈곤에 처하게 되기까지 받았던 차별과 낙인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실적이 될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지워졌다.



규격 없는
빈곤의 얼굴은
다양한 역사와 형태로
곳곳에,
그리고 잔인하게
존재하고 있다.

세상 그 누가 '빈곤'을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원고지 수백, 수천 장으로도 정리하고 정의 할 수 없는 게 빈곤 아닐까.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어렵고 복잡한 개념인 빈곤을 앞에 두고 '빈곤은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까.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난가?'라는 웃을 수만은 없는 말장난처럼, 규격 없는 빈곤의 얼굴은 다양한 역사와 형태로 곳곳에, 그리고 잔인하게 존재하고 있다.

10월 17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세계 빈곤퇴치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때,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한다. 빈곤이 모기나 파리도 아니고 퇴치가 무슨 말인가,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름일까.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은 한국 사회의 빈곤, 숨 쉬는 가난의 역사가 한 공간에 모인다. 도시 빈민, 노점상과 철거민, 임차상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 장애인, 저임금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온다. 시내의 중심에 서 도시 빈민과 장애인, 빈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꺼낸다. 거리를 걸으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 저 마다 요구는

다르지만, 돈 없고 힘없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삶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고, 인간답게 살자고 소리친다.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올해 빈곤철폐의 날의 기조였다. '가난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는 말처럼, 함께 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달라라는 우렁찬 속삭임이었다.



| 2016년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 일정 |

- 10월 3일**
<2016년 세계주거의 날: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_쫓겨나는 사람들의 Talk box>
- 10월 5일**
<쫓겨나지 않고, 내몰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1017 빈곤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 10월 10일**
<1017 반빈곤 연대의 날: 순화동철거민 연대춘뚎문화제>
- 10월 13일**
<1017 민중열사 묘역 참배>
- 10월 15일**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반빈곤퍼레이드>
- 10월 22~24일**
<1017 반빈곤 영화제: 사람이 산다>

| 2016년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 요구 |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
- 노점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강패 해체하라!
- 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
- 허울뿐인 홈리스 복지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
- 조물주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
- 쫓다 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행하라!
- 복지는 국가책임!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불평등 심화! 복지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세월호 진상규명, 진실을 인양하라!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규탄하라!

우리가 정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빈곤은 일시적이고 동정적·시혜적인 구호와 원조 따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삶의 경험적 근거와 역사가 있다. 그 근거와 역사는 말하고 있다. 빈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쟁취해 나아가는 걸음에 있다고.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하고 투쟁에 나선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이라는 기조 아래 10개의 투쟁 요구를 내걸고 10월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달간 계속됐다.

하나의 요구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한테 열 가지 요구라니. 심지어 노동시장과 사회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누가 보면 명칭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었다.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극명하게 나타나며, 우리가 내 건 각각의 요구는 가난한 사람들의 지금, 현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빈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쟁취해
나아가는 걸음에 있다고.

‘새 집 줄 테니 헌 집 달라’는 재개발 정책은 높고 반짝이는 비싼 건물들을 세우며 투기꾼과 개발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곳에 살아 온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거리로 내쫓는다. 평생을 거리에서 장사해 온 노점상들은 거리 미화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내몰린다. 노점상이 없어진 자리에는 화단이나 벤치가 놓인다. 목돈 들여 차린 가게의 상권이 뜨니 건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임차상인이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멍 난 복지제도 탓에 거리에 선 노숙인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차별과 폭력을 마주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자유도 권리도 없는 시설로 쫓겨나는 장애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는 있거나 한 것일까.

끝나지 않았다. 빈곤철폐의 날 투쟁이 지나자마자, 동작구 이수역 앞 떡볶이 노점상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용산역과 남대문시장에서도 노점상들이 싸우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과천 철거민은 10년 째 건설사 삼성과 싸우고 있다. 신수동 철거민은 대책 없는 개발 악법을 반대하다 구속됐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쟁취를 위해 성남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은 5년을 바라보며 계속되고 있다. 어느 새 11월 말, 겨울 냄새를 맡으니 날 선 바람과 추위를 마주할 가난한 사람들 얼굴이 스친다. 날씨와 기온마저 불평등한 사회에서 유난히 더운 여름을 견뎌냈을 사람들, 겨울은 또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올 동짓날에도 진행될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가난의 끝에 무연고로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살아 있는 가난의 역사를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숨기고 지우려 시도하는 사회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만으로 빈곤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아름다운 연대를 꿈꾸며,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함께 살자고, 외치고 행동해야겠다. 누군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구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백억의 더러운 유착은 병들고 죽어간 삼성 노동자들의 피눈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 그림, 녹색을 좋아합니다. 탐욕과 센스 없음을 싫어합니다. 반올림 농성장에서 잔소리하며 종종거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틈틈이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읽기, 쓰기, 고독, 연대에 대하여』를 읽습니다. 언젠가는 제 안도 들어다볼 사색의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 농단 사태가 박근혜-최순실-삼성의 비리와 유착으로 얽혀져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 서초 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삼성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오른손으로는 스물 몇, 서른 몇 살에 죽어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목숨 값 몇 천을 쥐어주고 입막음을 시도하면서, 왼손으로는 수백억이 넘는 돈을 최 씨 측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11월 3일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백혈병 피해자엔 500만원, 최순실에게는 수백억 뇌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린 딸아이가 죽어 가는데 삼성은 500만원을 내밀었습니다. 황상기 씨의 억울함을 듣고 2007년에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결성된 후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삼성 반도체와 엘씨디 공장에서 드러난 피해자가 사망자만 76명이고,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으로 병든 노동자는 제보가 이루어진 것만 224명입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들에 한번 투석을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 병든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생활비조차 없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메탄올에 중독되어 두 눈이 실명되기도 했습니다.

영업 비밀 핑계로 산업 재해 증거 은폐

그 긴 세월 동안 반올림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산업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아픈 노동자나 유족이 증명을 하라는데, 삼성은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들의 이름과 성분도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 비밀이라며 감췄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갔는데 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뒤에 삼성 이재용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검찰 수사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삼성편을 들며 작업 환경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삼성의 영업 비밀이라고 감췄습니다. 산업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증명하라는 부당한 제도를 수정하고, 정부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유엔(UN)의 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에 삼성 이재용은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 임원으로 선임되는 화려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이견회에서 이재용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해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적 방법을 자행해 온 끝에 이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관의 공조 덕분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수백억대의 비리와 유착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우리를 지배해 왔는지, 그리고 삼성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에서 반올림은 박근혜-최순실-삼성의 수백억의 더러운 유착은 병들고 죽어간 삼성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라고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반올림 농성이 1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도 삼성은 거리에 선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고 격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대화를 보류하며 결국은 얼마의 적은 '돈'으로 직업병 문제를 덮으려 할 때, 한편으로는 독일을 오가며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수백 명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올림은 민중총궐기가 있던 11월 12일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를 외쳤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 224명을 대신하여 224명이 방진복을 입고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최순실 일가에게는 수백억 뇌물을 주고, 백혈병 노동자에게 500만원을 내민 삼성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탐욕의 제국 삼성과 박근혜 정부가 부디 사과-퇴진-구속-처벌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삼성노동자에게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감도 인권역사 기행을 다녀와서

저 야산에 묻힌 원혼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하금철

어쩌다보니 장판에 들어왔다. 어쩌다보니 또 기자가 되었다. 이리다 인생이 온통 '어쩌다'로 채워질까 봐 두렵기도 하다. 그림에도 이 '어쩌다'의 연쇄 덕분에 '옹알이'가 아니라 공적인 '말하기'를 배우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산문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 넘는 꿈을 꾸며 산다.

암매장. 시신을 남몰래 땅에 묻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로는 '暗埋葬'이라고 쓴다. 어두운 매장. 시신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 텐데, '暗'이라는 글자가 굳이 앞에 붙은 것은 동어반복은 아닐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혹시 암매장에 대비되는 '명매장'(明埋葬)이라는 것도 있을까.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망자의 묘를 마련하고 기일마다 묘를 찾아간다. 그 행위들을 통해 망자의 기억은 살아있는 자들의 오늘로 소환된다.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희

미해질지라도, 산자가 망자에 대한 기억, 망자의 말을 붙잡고 이야기 나눔을 통해 망자는 여전히 우리가 꺾고 있는 햇볕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다.

반면 암매장은 망자에 대한 기억, 망자의 말을 소멸시킨다. 비석도 봉분도 없는 그의 묘 자리는 산자들을 향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 그렇게 말문이 막힘으로 해서 망자는 산자들과 함께 햇볕 곁에 있을 수 없다. 만약 '죽음도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인정한다면, 암매장되는 죽음만큼 불평등한 죽음도 없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말문이 막힌 죽음.

만약

‘죽음도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인정한다면,

암매장되는 죽음만큼

불평등한 죽음도

없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말문이 막힌 죽음.

그 야산에는 삼백여 명의 소년들이 묻혀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비마이너』 기자들과 노들야학 교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등 대략 14명 정도가 함께 이곳을 찾았다. 대부도 동남쪽에 위치한 선감도의 조그마한 야산. 약 10분이면 산 둘레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산이지만, 사실 이 곳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 알려진 바로는 최소 300여구의 시신이 이 산에 묻혀 있을 것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인 1942년 ‘부랑아’를 갱생시키겠다고 만든 외판섬의 감화원이 있던 곳. 우리는 이곳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이 억울한 원혼들이 겪어야만 했던 역사를 함께 되새겨보는 역사기행을 떠났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8세에서 18세 소년으로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부랑아들을 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함경남도 영흥에 영흥학교, 전남 고힌도에 목포학원, 그리고 당시에는 경기도 부천군 소속이던 선감도에 선감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실상 이곳에서 아동들은 20만평에 달하는 농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一死殉國)할 인적 자원”을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탄광에 끌려가기도 했다.

선감학원의 잔혹상은 해방 후까지 이어졌다. 1946년 2월 경기도는 선감학원 시설을 이어받아 새 건물을 짓고 부랑아 수용시설로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시설 운영은 마구잡이식이었다. 경찰은 부랑하지도 않고 연고자도 명확한 아이들까지 잡아 선감학원에 넘겼으며, 끌려온 아이들은 매일같이 곡괭이로 매질을 당하고 광활한 염전을 일구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아이들은 매질과 노역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고자 했으나, 이내 거친 파도에 휩쓸려 시체가 된 채 선감도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이 시체들은 인근 야산에 소리 없이 암매장 되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얼마나 묻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장애인 및 부랑인 시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왔지만, 선감학원의 사례는 그 어떤 경우보다 놀랍고 경악스러웠으며, 의문의 지점들도 많이 남는 것이었다. 그 층

격과 의문들 몇 가지를 대강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첫째,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존재하던 시설을 해방 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것 또한 일종의 식민지 잔재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라 해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런 시설을 이어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둘째, 죽음의 규모와 양상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런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동안 부랑인 시설의 최대 인권침해 사례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부정확한 자료라 할지라도) 공식 기록으로 사망자 수가 계산될 수 있고(12년간 513명), 그 피해의 실상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 하지만 선감학원은 피해의 규모를 가늠할 수조차 없고, 해방 이후에 피해 규모를 산정할 만한 자료조차 찾을 수 없다. 오로지 주민들과 일부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기대어 추측할 뿐이다. 게다가 이곳에선 18세 이하의 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잔학 행위가 이뤄졌다. 또한, 지금이야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와 오가는 게 수월해졌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고립무원의 섬이었기에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셋째,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감화령이라는 총독부가 만든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해방 후 다시 세워질 때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전무했다. 고작 1957년에 만들어진 전체 조항 6개짜리의 조례가 전부다(A4 용지 1/2페이지 분량이다). 또한 대부분의 부랑인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운영되었지만, 선감학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다. 1982년 시설이 폐쇄되기 직전 기록으로



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관할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선감학원 조례 어디에도 이 시설의 법적 인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다.

넷째,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침묵과 망각을 보여준다. 선감학원의 실상이 처음으로 폭로된 것은 1995년, 일제 강점기 당시 선감학원에 부임했던 일본인 부원장의 아들 이하라 히로미쓰 씨가 소설 『아! 선감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신의 조국을 대신해 참회하면서부터였다. 그의 호소로 이듬해 피해자 위령제가 열렸고, 최근엔 위령비도 세워졌다. 그러나 이하라 씨의 고백 이후 20여년의 세월 동안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피해자 보상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지고 난 후의 일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히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꾸려 뒤늦은 조사 작업에 돌입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부랑인시설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 과거 청산, 소년 부랑인 정책, 군사정부의 폭압성 등의 문제가 집약된, 한국 현대사 모순의 밀도 높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벌어진 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시설이 폐쇄된 지 34년, 이 문제가 최초 폭로된 지 21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는 동안 야산에 묻힌 선감학원 원생들의 억울한 원혼은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해방 이후에 벌어진 잔혹한 학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우리를 안내해주신 정진각 소장님은 1995년 이하라 히로미쓰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지금까지 홀로 선감학원 문제를 조사하며 진실을 추적해왔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선감학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 또한 그가 진행해 온 20년간의 외로운 조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날 기행에 앞서, 그를 통해 지금은 서점에서도 인근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하라 히로미쓰의 소설 『아! 선감도』를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소설을 통해 해방 이전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에 가는 대목은 선감학원생 조소국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다. 소설이라는 형식 탓에 본문 내용 중 적잖은 픽션이 가미되었겠지만, ‘저자 후기’에도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조소국의 사례는 실제인 듯했다.

조소국은 1945년 8월 초 선감학원에서 도망쳐 대부도로 달아났다. 그가 순사에게 붙들려 다시 끌려왔다. 섬 주민들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순사들은 그를 죽도(竹刀)로 무참하게 두들겨 팼다.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터져 나온 피가 마당을 적실 정도였지만, 조소국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 순간, 조소국은 갑자기 눈을 번쩍 치켜뜨더니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쏘아보면서 절규한다. “나는 왜놈이 아니다! 조선 사람이다!” 그는 이 한 마디를 남기고 혀를 깨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허나 나는 왠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에서 선감학원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부분은 이 대목뿐이었기 때문이다. 이하라 씨에게는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 손끝이 빨갛게 물들도록 찾아 헤매던 산딸기, 하얀 모란꽃과 새빨간 칸나, 또 갖가지 빛깔로 피어 있던 다알리아 꽃, 집을 둘러싸고 심어

놓은 무궁화 담장”으로 기억되는 유년시절의 선감도가, 같은 또래의 선감학원생들에게는 얼마나 생지옥의 불구덩이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식민지 침략국의 일원으로서의 죄의식이 오직 “나는 왜놈이 아니다! 조선 사람이다!”라는 외침만을 기억에 남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외침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이처럼 ‘핍박받는 민족’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해방 이후 죽어간 이름 모를 소년들의 원혼은 어떻게 불러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인가.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이 의문들은 안타깝게도 대단히 상세한 탐사보도를 시도했던 JTBC와 KBS의 보도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없었다. 경기도 당국이 해방 이후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잡아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선 선감학원 터에 경기창작센터의 새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섬 곳곳엔 여전히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반나절 내내 소년들이 암매장 된 야산, 선감학원생들이 처음으로 선감도에 발을 딛었던 나무터, 선감학원생 위령비 등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벌어진 역사의 흔적들은 현재 경기창작센터 내 작은 전시실에 몇 장의 사진과 옛 신문기사 스크랩 속에 담겨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야산에 묻힌 소년들의 목소리에 다가가기에 부족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곧 의회내 진상조사특위가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반가운 일이지만 이 일을 경기도의회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랑아’라 지목되어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철저한 외면 속에 죽음으로 내몰렸던 이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간의 역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일은 『비마이너』를 비롯한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경북지역 민간인 피학살자에 대한 위령제가 열렸던 1960년 7월 28일 대구역에선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길 위에 휴지조각처럼 찢겨진 채 버려져야 했던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한의 깊이에 다가가려면 천년의 세월로도 모자랄지도 모를 일이다. 하물며 전쟁도 아닌 때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그 슬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소년들은 말해 무엇 할까. 천년을 울어도 다 다가갈 수 없을지 모를 소년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며, 앞으로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미력한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핍박받는 민족’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해방 이후 죽어간
이름 모를
소년들의 원혼은 어떻게
불러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인가.





【노들은 사랑을 싣고】

선동의 외출

≡ 홍은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불수레반 담임이다.
2014년 7월 야학 상근활동을 그만두는 순간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앉아 멍 때리며 일기 쓸 때가 제일 행복하다.

...꽃동네에 들어간 야학 학생, 선동...

지난 10월, 꽃동네에 살고 계시는 조선동 님께서 1박 2일 외출을 나오셨습니다. 선동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노들야학을 다닌 학생입니다. 야학에 처음 올 때만해도 잘 걷고 잘 뛰던 분이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장애가 심해지더니 나중엔 아예 누워서만 지냈어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어느 해인가 자동차와 부딪혔다고 했는데 그것의 후유증이었는지, 아니면 뇌성마비 장애의 자연스런 진행이었는지. 하여간 연로하신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하루 6시간이었죠. 가족들은 결국 선동을 시설에 보내기로 했어요. 야학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게 2008년 여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선동을 만나러 처음 시설에 갔었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야학의 조사랑 활동가가 먼저 말을 꺼냈죠. "우리는 선동이형을

잇으면 안 돼." 사랑이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지원해 야학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정작 야학 학생이었던 선동은 꽃동네에서 살아가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임영희가 운전을 하고, 사랑이가 음식을 준비해서 떠난 꽃동네 행에 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선동은 너무나도 야위어 있었어요. 불에는 살이 하나도 없고 다리에도 뼈밖에 안 남았고 눈빛마저 흐렸어요. 선동은 언어 장애가 심한데요, 목소리를 낼 기력조차 없는지 '응, 아니' 정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속으로 '이 사람 이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다행히 선동은 차츰차츰 기력을 회복했어요. 일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세 번째 선동을 만났을 때, 선동이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요. 자신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가족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 선동이 나오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어머니가 긴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만남을 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동이 누나하고 형이 모두 반대해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아이 흔들어놓지 마세요. 앞으로 선동이한테 가지 마세요. 그냥 잊어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선동은 술을 아주 많이 마셨고, 연로하신 어머니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중증장애인 아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한창 심각했을 때의 선동은, '저렇게 술 먹

다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싶을 만큼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지나가는 시민이 길에 쓰러져있는 선동을 보고 야학 교사들에게 전화를 자주 해왔었어요. 교사들은 선동을 답답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죠. 교사들이야 하루 이틀이지만 그걸 매일 겪었던 어머니의 일상은 어땠겠어요.

2015년에 선동을 다시 찾아갔을 때 어머니의 입장을 전해드렸어요. 선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다는 뜻을 보였어요. 우리는 그날, 꽃동네 직원들에게 선동의 뜻을 전했어요. 담당 직원은 퇴소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가족이 동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 가족의 동의를 구해오라고 했죠. 가족의 동의, 그건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걸까요. 만나주길 앞으시는데.

...선동의 첫 외출, 가족과의 첫 만남...

그리고 올해 5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선동의 첫 외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꽃동네에 미리 전화를 했어요. 선동과 함께 외출할 테니 준비해달라고요. (미리 알리지 않으면 꽃동네에서 아주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꽃동네에서는 외출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유는 '보호자', 그러니까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동과 '직접' 통화하고 싶으니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꽃동네는 그것조차 거절했어요. 직접 와서 '면회'를 하는 건 막지 않겠지만 전화를 바꿔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



“인권에 대해서 잘못 배우셨나 본데요, 인권이란 선동의 가족이 아니라 선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60조 4항을 큰소리로 읽기 시작했

지요.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꽃동네에 울려 퍼지던 ‘시설의 의무’. 아, 이 장면은 멋있고 몽클했어요. 우리는 꽃동네의 사무실에 앉아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 책상에 앉아 일하는 척 애써 우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던 그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무실 바깥을 서성이던 거주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줄을 먼저 내려놓은 건 원장님이었습니다. 결국 외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선동을 차에 태우고 나와 좋은 경치가 보이는 닭갈비집에 앉아 기쁨과 승리감을 나누며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선동의 누나와 형들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통화하는 내내 제 심장이 쿵쿵 널을 뛰었어요. 가족들은 야학과 센터 사무실까지도 전화를 해서 대표 바꾸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장 쫓아와서 교장 선생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죠. 그분들

은 우리가 선동을 납치라도 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선동에게도 평생 속을 썩인다고, 온갖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날 선동을 들여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작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족 분들을 만났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그 사단이 없었다면 가족들은 절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함께 만났는데, 저는 그분들이 교장 선생님의 긴 머리채를 낚아챌까봐 미팅 장소로 야학의 교실, 그중에서도 문이 투명한 교실을 잡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조금 풀어서 말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시설이 소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꽃동네 같은 대형시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시설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거기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동이 탈시설하면 받게 될 활동보조 서비스와 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설명했어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현금으로 따져 합치면 한 달에 600만원이 넘었으니까요.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좀 잘 하셨어요. (짜짜짜!) 그동안 공무원들이랑 싸우면서 생긴 노하우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셨어요. 설명을 듣고 있자니, 선동이 꽃동네에 들어갔던 2008년 이후 생겨난 변화가 저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리고 평원재와 체협ם, 자립생활가정 등 선동이 살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우리는 가족들을 모시고 야학과 센터, 활동보

조인 교육기관, 평원재를 방문했어요. 선동이 오면 지내게 될 곳, 만나게 될 사람들, 활동보조를 연결해줄 센터, 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기관들이었죠. 그리고 야학 휴게실에 옹기종이 모여 있는 학생들도 보셨어요. 모두 선동과 같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가족들은 차츰차츰 오해를 풀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선동을 납치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하하. 누나들은 안심을 하시고, 마지막엔 고맙다고 말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헤헤,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겼어요. 이젠 정말 탈시설만 남은 건가 싶기도 했지요.

... 희망의 첫발, 그러나 ...

그리고 지난 10월, 대망의 1박 2일 외박이 추진되었어요. 긴 시간동안 선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꽃동네에 함께 갔었던 야학 교사 조사랑과 임영희는 사정이 생겨서 같이 가지 못하고, 저와 필순이 준비했어요. 운전과 활동보조로는 야학 교사 준호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달려와 주었어요. 가족들의 동의까지 얻었으니 외박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듯했어요. 우리 마음처럼 날씨도 너무 청명했고요. 선동은 그렇게 8년 만에 서울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노들야학의 교사와 학생들도 만났고 선동의 탈시설을 추진해줄 노들센터에 가서 인사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로를 돌며 이어폰과 작은 가방도 샀어요. 아, 선동은 바로 이틀 전에 핸드폰을 장만했어요. 지난 5월 외출 때 선동이

핸드폰을 사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꽃동네 직원들에게 전했어요. 선동 씨가 핸드폰 구입을 원하신다고요. 직원들은 알았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장만을 했는데, 그게 딱, 우리가 선동을 만나러 10월에 꽃동네에 가기로 한 날의 바로 이를 전이었어요. 참 공교롭지요!

선동은 핸드폰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어요. 그곳에 간 후로 선동이 가진 개인 소지품으로는 핸드폰이 유일했을 테니까요. 선동이 서울에서 사고 싶어 한 것도 모두 핸드폰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음악을 듣기 위한 이어폰과 핸드폰을 보관할 작은 가방이요.

야학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선동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누워서만 지내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려니 몸이 힘들었나 봐요. 숙소인 평원재로 계획보다 일찍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동을 만나기 위해 '옛날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평원재 거실에 이불을 편 후 선동은 누웠고, 우리는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보쌈을 시켜 8년 동안의 회포를 제대로 풀어볼 작정이었지요.

그리고 사건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꽃동네에 살겠다”고 선동이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했어요. (선동은 눈빛으로 말한답니다.) 살겠다고요? 아니, 나오겠다고 아니고 살겠다고요? 살면서 뒤통수를 하도 여러 번 맞아서 내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해졌지만, 선동의 말은 38년 인생에서 맞았던 뒤통수 중 베스트 쓰리 안에 들 만한 것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조선동이 돌아왔구나!’

오래 전 야학에서 한글 수업할 때면, 선동이

숙제를 안 해 와서는 숙제 안 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선동의 언어장애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동은 끝까지 말을 하거든요. 나는 말한다, 너는 알아맞혀라. 그런데 그게 또 묘한 마력이 있어서 그걸 들으려고 애쓰다보면 어느 새 수업 시간은 다 끝나가고, 다른 학생들은 짜증이 나있고, 나는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배신감에 치떨게 했던 건요, 그 숙제 안 한 이유가 너무나도 별 것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꽃동네에 계속 살겠다고요? 그날 밤 평원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달라붙어서 선동에게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고 짐작하고 해석한 결과는 이랬어요.

“꽃동네에서 나를 일주일에 세 번 야학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므로 나는 꽃동네에 살면서도 야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굳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살겠다.”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선동은 확신에 차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꽃동네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서, 그 예로 핸드폰도 사줬고 요금도 내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말했죠. 그건 몇 달 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고, 요금도 당신의 장애수당으로 내는 것이지 꽃동네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선동은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했어요. 이러다간 밤을 꼴딱 새 것 같았죠.

아, 복병. 우리는 왜 그렇게 수녀님과 싸웠고,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쌍욕을 먹었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 조선동. 저는 너무 힘이 빠졌어요. 사실 그 외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늘

같이 다녔던 조사랑도 없고(사랑이는 베테랑이거든요) 임영희도 없어서(영희는 늘 밝고 긍정적이죠)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저의 정신 상태를 널을 뛰었어요. “이 사람아, 꽃동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하고 선동에게 짜증을 냈다가, “휴, 그러세요. 거기 수녀님하고 행복하게 사세요”하고 세상 포기한 듯 웃었다가, “선동이형, 이제 난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죠. 안녕”하고 잔인하게 손을 흔들었다. 선동은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안녕”하면 대번에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아아. 알미운 사람.

... 선동의 탈시설은 가능하겠죠? ...

다음날 꽃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동이 했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원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잘라서 말했어요. 아아아, 그렇게 단호하실 것까지야. 아아아, 허무해. 삼자대면으로 진실이 가려지자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조선동은 온 데 간 데 없고 당황하고 무안한 조선동만 남아 있었어요. 간밤에 우리는 왜 그렇게 조선동과 씨름을 했던가, 내가 씨름한 조선동은 유령이었던가. 원장님께 혹시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더니 그조차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시설로선 정말 불가능한 일니까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선동은 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상을 했

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토록 굳건한 확신으로 변했던 걸까요. 저로서는 알 길이 없네요. 그저 짐작할 뿐이에요. 8년 동안 살았던 곳이니 어느새 익숙해졌겠구나, 바깥 세상이 뭔가 많이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었구나, 몇 번의 외출만이라도 허락된다면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8년이란 긴 시간이었겠죠. 8년, 아마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인간성을 상실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인간성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시설 바깥에 있는 우리도, 그를 우리 사회에서 밀어내면서, 그를 잊으면서, 인간성을 상실해나간다고요.

선동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여기 사실 거예요?”

선동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으면서도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선동이 알미워서 어금니를 꼭 깨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제 밤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형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밖



에선 아무것도 추진 못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말했어요.

“나 이제 안 올 거야!”

알고도 한 말이지만 다시 써놓고 보니 참 잔인한 말이네요. 내가 꼭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아마 선동은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마저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가버렸는데, 대체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노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노들의 생각이겠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는 지난 8년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다음에 또 올게, 라는 말이 기다리는 사람에겐 얼마나 고통스런 말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잊는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무서운 일인지. 선동은 알고 있는 거겠죠. 아아아, 몰라요, 몰라요. 이것조차 모두 저의 짐작일 뿐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말했어요.

“휴, 다시 올게요. 전화할게요.”

요즘 선동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요. “밥 먹었어요? 아픈 데는 없죠? 조만간에 갈게요.” 저 혼자 말하다가 끊는 그런 통화. 가끔은 선동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영상 통화를 해요. 선동의 얼굴은 안 보이고 선동의 방 천장만 보여요. 선동이 8년 동안 바라본 그 천장을 핸드폰으로 바라보는 느낌. 참 이상했어요. 선동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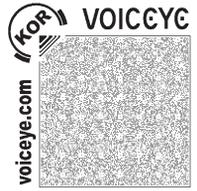
이 글은 10월에 있었던 1박 2일의 외출에 대한 것인데, 그 외출을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시설로 들어가는 건 한 순간이지만 한번 들어간 시설에선 나오기는 이토록 어렵다는 걸, 나와 우리가 잊고 지낸 조선동이란 사람의 8년을 기록하는 의미로 길게 적어보았습니다. 내년엔 꼭 선동이 나온 것으로 이 기록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년 12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강남훈·강문형·강미진·강병완·강복원·강복현·강성윤·강수혜·강영미·강영미2·강유선·강정자·강주성
강현욱·강희관·고경신·고기연·고동수·고명선·고명희·고승현·고아라·고재현·고정화·고제현·공한복
공명철·공선화·공옥희·공정옥·공정옥2·곽노근·곽상아·곽성자·구경민·구수준·구승기·구자숙·구정서
구현아·궁영혜·권경숙·권기원·권대상·권미경·권민희·권병주·권순만·권순성·권영주·권영희·권익재
권진영·권태국·권혁은·김가경·김각균·김건욱·김건형·김경원·김경은·김경혜·김관희·김근식·김기룡
김기성·김기우·김기호·김낙현·김남수·김대희·김도경·김도현·김동은·김동진·김두경·김명학·김명화
김문주·김문호·김미선·김미성·김미영·김미영2·김미진·김미현·김민·김민림·김민아·김민아2·김민영
김민호·김민희·김병식·김병오·김보연·김봉석·김부연·김석규·김선미·김선아·김선영·김선영2·김선영3
김선욱·김선화·김선희·김설민·김성마·김성은·김성현·김세영·김소명·김소혜·김소희·김수경·김수연·류동훈
김수영·김수한·김수현·김수호·김숙아·김승혜·김아람·김애경·김연성·김연수·김연옥·김연희·김영미·김영민
김영선·김영승·김영희·김용남·김용성·김용우·김용욱·김용진·김용진2·김용철·김우경·김우영·김우교
김유미·김윤경·김윤자·김윤정·김윤진·김은정·김은희·김이중·김인숙·김재경·김재양·김재희·김정민·김정은
김정하·김정현·김종욱·김종윤·김종호·김종환·김준·김준호·김준휘·김지민·김지숙·김지순·김지연·김지영
김지은·김지환·김진수·김진수2·김진우·김창배·김태승·김태연·김태인·김판균·김푸른솔·김필승·김한민·김
한솔·김한준·김현경·김현식·김현영·김형배·김형호·김혜미·김혜옥·김혜진·김홍숙·김홍희·김희재
김희정·김희정2·김희정3·김희찬·김희현·나선영·나해니·남대호·남두형·남완승·남정민·남지현·남효진
남규호·남미경·남상경·남상은·남영조·노의현·노현택·노혜련·류명욱·류승화·류승환·류정숙·류정자
류향희·마미주·맹보영·모경훈·문건화·문경희·문상태·문성원·문소리·문예진·문주남·문지은·문창배·민혜숙
박경석·박경숙·박경순·박경아·박경혜·박경화·박계선·박누리·박명숙·박미영·박민경·박민영·박민우
박보건·박보라·박상호·박서희·박선우·박선은·박성욱·박성희·박세단·박세영·박세진·박세호·박소영·박소영2
박승국·박시백·박애경·박여의·박연희·박영민·박영환·박은미·박은정·박은정2·박임당·박장근·박장근
박재국·박정수·박정숙·박정원·박정희·박종진·박종철·박종필·박주연·박준호·박지민·박지영·박진우·박태만
박하순·박현민·박현희·백승석·배경원·배덕민·배문섭·배상근·배수자·배승천·배안나·배유주·배재현
배준영·배진민·배치녀·백미라·백수경·백승혜·백연희·백재선·변하연·삼성유니콤·서기현·서남규·서동석·서
명순·서명아·서미선·서미원·서민영·서민희·서봉경·서유나·서은수·서정록·서정희·서주형·석지윤·선혜란
성정현·성창기·성희선·성희옥·송동각·송선아·송성권·송성환·송우정·송은주·송은배·송주영
손준희·손환목·손희경·송기호·송무림·송병준·송상훈·송선화·송영만·송영자·송우영·송정규·송종호·송창국
송현정·스파인2000 왕태윤·신미숙·신복순·신봉준·신상우·신수정·신수정2·신숙희·신순영·신연실·신영근
신원미·신원정·신은희·신임식·신재봉·신진·신현훈·심미경·심선진·심은선·심이영·심인섭·심정규·안가영
안경호·안남희·안남필·안바라·안병국·안병호·안석호·안선영·안선영2·안성희·안소진·안영준·안인숙
안정원·안정은·안종녀·안향미·안희옥·양무현·양석주·양수경·양수정·양은근·양인순·양정화·양현준
어수진·엄재균·엄주영·엄주철·여연주·여준민·오미영·오보람·오상만·오선실·오원주·오정환·오정자
오정희·오지은·오진희·옥섬·우림건설(주)·우시우·원성현·유남숙·유문수·유별라·유보배·유애리·유영순
유정옥·유경훈·윤기범·윤길중·윤동구·윤명섭·윤미선·윤봉섭·윤석규·윤선기·윤승용·윤승원·윤이용
윤정미·윤정민·윤정은·윤정임·윤종배·윤준서·윤호진·윤희·윤희수·은종복·이강수·이건하·이건희·이경덕
이경아·이경훈·이경훈2·이경희·이계삼·이광만·이광재·이근희·이금희·이금희2·이기훈·이동은·이동진
이두혁·이리나·이미나·이미리얼·이미영·이미영2·이미정·이민규·이법민·이비함·이상림·이서윤·이서준
이석원·이선진·이선희·이선희2·이성호·이성희·이성희2·이수연·이수영·이수정·이수현·이순웅·이승민
이승현·이승현·이승호·이말찬·이양화·이연옥·이연주·이영경·이원진·이유미·이유진·이윤욱·이윤주
이윤지·이은숙·이은정·이은정2·이은주·이장우·이재령·이재승·이정실·이정은·이정희·이제성·이제현
이종각·이종국·이종란·이종실·이종현·이주오·이주욱·이준길·이준범·이지연·이지영·이지은·이지혜
이지환·이진실·이진영·이진영2·이진주·이진희·이찬미·이철우·이태곤·이한호·이현명·이현숙·이현아
이현정·이현진·이현희·이형록·이형욱·이호연·이호중·이희국·이효정·이흥호·이희은·임광열·임나미·임덕심
임동근·임영희·임원택·임은영·임은정·임인자·임자윤·임주현·임춘학·임혜숙·장경주·장근영·장명희
장미희·장상순·장선영·장선정·장성관·장성아·장세진·장욱란·장원·장정환·장지희·장혜미·장효정·전경래
전국초등학교교과모임·전권세·전기성·전대진·전미라·전미영·전민숙·전상우·전성자·전욱·전규영·정다은
정대수·정대훈·정명진·정미란·정민구·정병순·정상엽·정상욱·정선숙·정성철·정세원·정송이·정연신[개똥
이네 놀이터]·정영란·정영석·정영자·정영호·정옥순·정용근·정용훈·정우영·정우중·정우준·정운영·정우경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정유진·정은경·정익화·정인준·정재훈·정종권·정종훈·정지영·정지혜·정진영·정진용·정진이·정창조
정택용·정현강·정현경·정현진·정혜림·정혜원·정희덕·정희선·제갈병규·조경애·조명구·조미숙·조미정
조사랑·조성남·조성진·조수안·조승하·조아라·조원일·조유미·조윤경·조윤실·조윤정·조은별·조은주
조은진·조응현·조재범·조형숙·조혁진·조현경·조혜민·좌동업·좌미경·주상연·주영은·주용준·주은아·지덕근
지세진·지암메디테크·지혜림·진영옥·진영민·차무영·차순정·채이배·천성호·천영희·천종민·최귀선·최동호
최미란·최민경·최병희·최보경·최상희·최석문·최선아·최승우·최영식·최영은·최우영·최운선·최은경
최은숙·최은아·최은정·최정민·최정원·최정은·최정은2·최정희·최진석·최찬일·최하정·최한별·최현진
최혜림·최혜영·하경남·하정자·한남희·한명숙·한명희·한상배·한상엽·한선희·한성안·한송희·한양재
한윤경*최병선·한주영·한혜선·한혜원·한희자·허병권·허보영·허신행·허완수·허정일·허진아·허진태·허창
허재재·현영철·현정민·홍도순·홍성미·홍성미2·홍성호·홍성대·홍순희·홍영희·홍은전·홍은진
홍주영·홍지연·홍진표·홍철기·홍혜리·황무초(무민)·황미향·황성윤·황승미·황정희·황진미·황하연·황혜진
황희준·(재)유한재단·(주)다음커뮤니케이션·(주)머스트자산운용·(주)서울전자산업·(주)한국동서발전

계좌이체 후원인

강수혜·고명선·공한복·구자숙·김미선·김선심·김용철·김용철·김은정·김지윤·낙산교회·남완승·류동훈·
류승아·박경선·박현규·사랑의후원금·서금석·손애리·송영자·안선영·안성희·엠알엠글로벌·오선실·윤종배
윤지형·이두혁·이수영·이한진·이현숙·이현우·이형욱·장콜기사·전준규·정옥순·조광배·차명수·착한콜
위드고·최상희·티에이지엘·허건·허병권·황미향·황재숙·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 7월** • **장선정** 도너츠 2Boxes, 비타음료 1Box / **간디학교** 도너츠
해방의 나팔당(+김윤진) 쌀 40kg / **생수 아저씨&정숙** 생수 / **한살림** 쌀
60kg / **무명** 오이 2Boxes
- 8월** • **김정숙** 책 1권(제주의 파랑새) / **김현호** 컴퓨터 1대
- 9월** • **평원재 이사장** 사과와 배 각 1Box / **한살림** 쌀 60kg / **THL** 백설기 40개
/ **히옥스(하자센터)** 궁중떡 / **제주도 야학협의회** 감귤 1Box
- 10월** • **한살림** 쌀 60kg + 쌀 40kg + 치약칫솔 set 24개 / **홍성훈**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폰스 도데의 '어머니' / **송전원** 분유 20kg 2포대 / **김영균** **열사**
추모사업회 고구마 1Box / **최병조** 포도 1Box
- 11월** • **한살림** 쌀 60kg / **음향자유** 고구마 2Boxes / **류미래** 고구마 1Box / **밀**
양, 미니팍 반거시감 4Boxes / **정우준** **똥** 대봉 3Boxes
- 12월** • **한살림** 쌀 60kg / **점바(Bar)** 쌀 70kg / **밀양** 햅쌀 반가마, 뽕지 40개 /
윤영희 신선한 압착 유채유 2개 / **스파인 2000** 굴 2Boxes / **민주노총**
쌀 30kg

후원물품 판매 안내

- 『노란들판의 꿈』(홍은전 지음, 봄날의 책 펴냄, 12,000원)
- 『지금 이 나는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 매실청(900ml -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